朝鮮日報 夕刊 十四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日本의北中工作을 英佛、牽制에努力

英佛大使極秘裡에活動開始 駐屯當局推移監視

【北平十三日發同盟】南京에서日中交涉經過에對하야 各國이모다 異常한注意를하고 그活動도 裏面的으로부터 漸次表面的으로表現되며 特히日本國策의 反映이라고할北中에잇서서의 經濟建設에 關하야는 가장 關心을 갓고잇다 駐中英國大使 휴겟선氏는 過般極秘裡에 宋哲元氏와會見, 英國의 北中權益確保及今後日中關係調整에 對하야 相當히 突入한 意見交換을 한模樣이데 또佛國大使나기ー아氏도 第二十九軍及 冀察政權首腦部와 會見 日本의北中工作에 對하야 牽制的活動을하고잇다는 事實이잇스므로 日本側現地當局은 特히此等策動에對하야 警戒의눈을 크게 뜨고잇다 한다

駐屯軍會議 原則堅持를決意

【天津十三日發同盟】上海로부터 北上한楠本大佐를마지한 中國駐屯軍은 十三日午後一時半부터 司令官官邸에 專屬會議를開催、楠本大佐로부터 川越蔣介石會談內容을說明、田代司令官을中心으로協議를거듭하엿는데 그結果 大體左와如한結論에 達하엿다고 傳聞한다

一、蔣介石氏는 口頭禪的抽象論에서 誠意를입으로 부르지즐뿐이오 實際的으로는 從來보다 一步도前進치안할
二、中國은 終始하고 本交涉에잇서서 原則論에 終始하고 實際問題解決을 遷延시키고 잇는것으로 推測되며 充分한 注意를要함
三、蔣介石氏의 現在態度로보면 北中 防共問題、經濟提携問題、高度自治實施問題等은 日本의 希望點에 到達하기에는 困難한데
四、第三國의 活動은 자못活潑한데 이點注意를要함
五、駐屯軍은 旣定方針을 堅持하고 以上諸點에對하야 充分警戒하며 川越大使에對하야全面的으로 此를 支持하야交涉의推移를 監視할것

高岡、澤宮兩氏 動亂의西班牙脫出

【東京電話東盟】動亂의西班牙首都 마드리드日本公使館을 死守하고 三個月남어지 悲壯한 籠城을 繼續하여온 高岡一等書記官及 宮澤書記生으로부터「情勢惡化에 할수업서 御眞影을奉持하고 西班牙를 脫出한다」는 電報가 十三日外務省에 到着하엿다 政府軍의頑强한 抵抗에 對하야 叛軍은 마드리드를 包圍하고 空爆等의 非常手段은 行치안흐나 糧道를切斷하고 飢餓攻擊을敢行하야 마드리드陷落도 今後十日前後라는 悲壯한 運命에 路하엿는데 有田外相은 生命의 危險한도 不拘코 公使館에 籠城하고잇든 高岡 宮澤兩氏에對하야 十月一日附로「適當한 機會를보아서 撤退하라」고 訓電을 發하엿스나 最後까지 頑張히 決意한 兩氏도 政府軍의 敗戰과가리 各戰線으로부터의 敗殘兵과 政府要路의 人物은 各各 情勢를따러 日本公使館에 避難을 申請하여와서 自己身邊의 危險은 不拘하고라도 이대로 放置할境遇에는 國際問題를 惹起할지도몰으는 狀態이고 다시 御眞影奉始하야 各種貴重한外交秘密文書及 日本外務省과 在外大公使館사이에 使用하는 外交暗號表等도 잇스므로 此等 全部를 都合하야 이제야 마드리드 脫出의決意를 堅持하고 二、三 日中高岡氏夫妻宮澤書記生의三 名은 地中海에 强한 아리칸테에無事히脫出、마르세이유領事館으로부터 特派된 數俵書記生과가 一西班牙를脫出하야 佛國국경 산・잔・드・류스市에避難하고잇는 矢野西班牙公使와맛날 豫定이라한다

二千萬磅新借款 國際投資團誘引

【倫敦十三日發同盟】英政府의輸出信償協定으로 南京政府는 事實上 數百萬磅의 크레디트를設定하기로 決定하엿는데 他方中國에對할 國際借款案締結의 希望을버리지안코 日佛白三國政府와 그目的下에 折衝을 거듭하고잇다 確聞하건대 英政府當局은 右交涉은 이미締結되엿다稱하나 리ー드・로스特使가 中國에進出한 當時의 懸案이엿스니만치 依然 國際投資團과의 間에 連絡折衝을 繼續하고잇지나안흔가 觀測되다 더욱히 借款金額은 相當히 巨額에達하므로 여러가지 障碍가잇서서 로이텔通信과 가튼것은 借款은 아즉明確히決定되지안헛다고 報道하고잇스며 他方借款案의 內容도 判明되지안흐나 骨子라하는것은 如左하다

一、總額二千萬磅
一、投資方法
一般交涉은 滿足히 進捗되여 今週末 乃至 來月初에는 借款案의 內容이 發表되리라는 觀測까지 傳하고잇다 따라서 信用設定方法에 依치안코 國民政府는 國際市場에서 起債、日英佛白各國이 特히引受한것
一、用途
國民政府는 右資金으로 國內의 經濟的開發을 企圖할것

英國政府 上海에通商代表設置

【倫敦十三日發同盟】英政府는南京政府와의間에 輸出補償協定을 締結함과同時에 近近上海에 通商代表를 任命할것으로 推測되다 保守黨議員바ー른라크氏는 議員을辭任 右代表에 任命될것으로 傳하는데 아직 確報는업다

局長會議

總督府定例局長會議는 十四日 午前十時에第二會議室에서 開催 富永學務局長으로부터 敎育勅語御下附二十五週年 當日에는各學校에서 가장嚴肅히 記念奉讀式을 擧行할터이라고 報告와 遞信局長代理로부터 京城樹里間의定期航空은成績이 頗히良好하엿다고 報告 齋藤專賣局長代理로부터 今年은 天候不良으로 製鹽成績이稍히不良하야 三億三千八百萬斤의豫定의것이 二億九千二百萬斤의 製鹽에不過하야 豫定의八割六分四厘에 不過하나在庫鹽이 充分함으로 需要供給에는 支障이업슬것이라고報告 又相川外事課長으로부터 在滿朝鮮人의 農作은極히豊作으로 昨年一割乃至一割五分의 增收일것으로 今年은 備荒貯蓄을 奬勵할터이라 報告한後 總督으로부터 現下時局에 鑑하야 特히 職員으로서의 覺悟心得에 對하야 注意가잇슨後 十一時에 閉會하엿다

潛水艦使用制限에 關한條項은 華府倫敦條約失效後도存續하기로 關係政府間의 諒解가成立되여 英政府는 議定書의 作成을 急히하고잇는데 요즘日米佛三國에 伊太利政府도 十日正式參加를 通告하야왓스므로 議定書는 近近倫敦에서 調印하기로되엿다 그리고英政府는 獨蘇兩政府、스칸디나비아諸政府에對하야도 外交機關을通하야 近近、議定書參加를慫慂하기로되엿다

京畿道警察異動

京畿道에서는 十月十三日付로 左記와가티 異動이잇섯다。

發令事項	所屬	氏名
西大門	加平署長	淺木 幹雄
警務課	京城西大門	吉野 藤藏
高等警察課	龍仁署長	吉本不可欣
龍仁署長	長湍署長	古賀 新作
警務課(致廣州署長)	廣州署長	管之熊次八
廣州署長	京城鍾路	永井 [illegible]
京城東大門	昌德宮	嚴 柱勉
昌德宮署	京城東大門	李 [illegible]寶
警察部外事警察課	警務	濱野 洋
京城鍾路署	京城東大門署	伊藤 勝
警部加平署長	京城本町	東 淳二
警部長湍署長	開城	平山 豊
警察部刑事課兼警務課	龍仁	金 冕圭
外事警察課兼高等警察課	京城西大門	荒木 菊雄
外事警察課	高等警察	高橋信之助
西大門	驪州	草野左都夫
京城東大門	京城本町	平林 米一
高等警察課	開城	岡村 繁雄
開城	楊平	今木 繁六
警部補 京城本町	江華	安部三十二
警部補 京城西大門	仁川	高原 菊次
警部補 驪州	京城本町	橋田 秀春
警部補 仁川	高等警察課	高松 登
警部補 抱川	京城本町	金 克南

英의對中援助露骨化

數百萬磅에達하는 大借款契約締結 數日內新借款契約全文發表

商權確保以外에 政治的意義甚大!

今回借款成立은英의對中關心을表明

【倫敦十三日發同盟】英國大藏省輸出信用保證部는 十二日國民政府倫敦特派代表와의間에 數百萬磅의新借款契約締結에 成功하엿다 英國政府는 近近對中經濟援助에向하야 積極的活動을 하기로되엿다 政府는 一兩日中에新契約全文을 發表할것인데 時期가時期인만치 日中交涉의重大局面에當하야 英中兩國政府가 密接한援助提携를 하는것은 特히意義잇다고重視하고잇다

眞相判明後 그對策을講究 外務省의方針

【東京電話同盟】英中借款成立에關하야는 아직何等外務省에 報告가업는데 外務省으로서는 英中借款이 中國의 自力更生을促進할性質의것이면 反對치안흐나 이것이 中國의 財政을 動搖하고 幣制改革、軍備充實의 性質을가진것이라면 絶對反對치안흘수업다는 意向을 갓고잇스므로 眞相이 判明되는대로 吉田大使에게 訓令을 發하야 相當한措置를 取하기로되엿다

倫敦헤랄드紙說破

【倫敦十三日發同盟】英政府는中國經濟開發의 前提로 國民政府에 對한 借款을 提唱、리ー드・로스特使를 極東에 派遣하야 借款成立에 極力斡旋하엿는데 日本政府가 國際借款은 中國의 國際共管을 誘致한다는 立場으로 斷乎反對를 表明하엿기때문에 獨自의 立場으로 中國에 對한 實際的措置를 企圖、엑스포드・크레디트・개런티・데파ー트멘트를 通하야 倫敦駐剳國民政府代表者사이에 今回輸出補償協定을締結、同데파ー트멘트는 半官的 保險會社에 不過하나 過般蘇聯政府와의間에 一千萬磅에 依한 크레디트協定을 締結한 事實이잇고 그背後에 英政府의 政策과 保障이 厳然存在한것은 推測할수업다

確聞하건대 리ー드・로스特使는 國際借款에 失敗하고 七月歸國以來一個月中國代表와의間에 數次에亘한 折衝을 遂한結果 輸出信償의 形式에依하야 英政府가 事實上數百萬磅에及한 借款을 國民政府와 締結하기에 決定 如斯히 北中長江一部에서 商權을擁保함과同時에 中國에서 政治的勢力을保全할處置에 나온것이라 解釋된다 勿論英政府는國際借款案의代案으로서 輸出補償案을締結함에 不過하나 特히日中間目下의 外交關係에 刺戟되엿것이아닌가 推測되나 데이리・헤랄드紙는 十三日紙上에다 補償協定成立의 裏情을暴露한後 協定의政治的意義를 强調、左와如히述하엿다

엑스포드・크레디트・개런티・데파ー트멘트는倫敦駐在中國代表와의間에數百萬磅에及한借款을締結하엿다 細目은近近公表할것이다 協定의結果 大略國際的으로重大한 波紋을 惹起할것이라 한다 借款案의 成立까지에는 折衝數個月에 亘하엿는데 結局借款締結은 主로 리ー드・로스特使의 斡旋의 賜物이다 借款案의 成立에 依하야 中國에서 英國의地位는 强化될과 同時에 日本에對한 重大警告로될것이다 英政府는 從來日本에 對하야 親善的態度에도不拘하고 同時에中國에對하야 將來도 無關心이아닌 것은 今回借款에 依하야闡明할수잇다 다시 借款案의 實施와 同時에 英國産業界에對한 中國으로부터의 注文은 顯著히增大하야 輸出貿易은 有益한 刺戟을바들것이다

第一次豫備交涉 日中主張背馳

中國側自說固執不讓

【南京十三日發同盟】外交部亞洲司長 高宗武氏는 十三日午後三時 日本大使官邸를 訪問、須磨總領事와 會見하고 約二時間半에亘하야 第一次豫備交涉을 行하엿다 交涉內容은 日中雙方의協議에 依하야 嚴秘에 附하고잇스나 確聞하면 右會談은 爲先成都、北海兩事件으로부터 解決을 圖한다는 中國側의 態度를 整을 根目으로하는 日中懸案全般에亘한 日本要求에 基하야討議를 開始하엿다 그리고 中國의 態度는 意外로强硬하야 特히防共北中問題等 二、三重要問題에 對하야는 中國側은 어데까지던지 自說을固持하야 不讓하고 蔣介石、川越兩氏會談의 意義를 沒却하는態度까지 보이여 豫備交涉은 벌서 第一次會談으로 波瀾을惹起하야 結局 何等具體的 成果가업시 終了한것갓다

如斯하야 川越張群兩氏正式交涉도 언제나 開始될는지 結末을 짓지못하고 須磨高宗武兩氏間의 豫備交涉에 依하야 妥協點發見에 努力하는外 아무道理가업시 今後幾多의 曲折이 豫想되고잇다

고 對策을 協議하얏는데 中國側空氣는 日本의 武力發動誘致는 極力回避하나 外交交涉은 最後段階까지 强硬히 進行하기로 一致하엿스므로 交涉의急速한 進展은 到底期待할수업는現狀이다

日、中兩當局 會見內容聽取 交涉急展은難期

【南京十三日發同盟】川越大使는 十三日午後八時 須磨總領事、松村書記官以下 首腦部를 招致하여 須磨總領事로부터 今日高宗武氏와의 會見內容을 聽取함과 同時에 今後對策에對하야 協議한바잇섯는데 一方中國側도 張外交部長以下 關係者參集 高宗武氏로부터 經過報告를 聽取하

皇太后陛下 宮城에行啓

【東京電話同盟】皇太后陛下께압서는 十四日 宮城에 行啓하압시엿다 當日 皇太后陛下께압서는 大谷大夫以下를 隨行하압시고 午前十一時三十分 大宮御所御出門、宮城에行啓、北海道御巡幸을 終了하압시고 御無恙하압시게 御還幸하압신 天皇陛下 皇后陛下에 御對顔 御晝餐을 마치압신後 天皇陛下께압서 陸軍大演習地方行幸의 御模樣等을 말삼하압시고 三陛下御團欒裡에 爽秋의半日을 보내시엿다 皇太后陛下께압서는 午後四時半 宮城御出門、御機嫌麗하 御還啓하압시엿다

英中航空連絡 蔣、스會談으로强化

【香港十三日發同盟】英國極東空軍司令官시드니・스미스氏는 過般廣東에서 蔣介石氏와 會談하고 廣東의 航空界에서 英國勢力扶植에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는데 確聞하면 右會談의 結果 바라셀群島에 給油所를新設하고 이로부터 英中間의 航空連絡을 一層强化할라는 双方의 諒解가 成立된 模樣인데 一面英國의 對西南軍事連絡의 具體化라고 推測된다

神宮奉賛武道大會

武德會朝鮮地方本部에서 十月十七日、八兩日에 府內光化門通警察官講習所武道場에서 朝鮮神宮奉贊武道大會를 開催한다고 한다

佛、모나코合併 具體案交涉中

【몬테칼로十四日發同盟】모나코政府는 同公國을 佛國共和國에 合併하고 몬테칼로를 佛國의 海港으로할 方針下에 具體案을交涉하고잇다고 傳하다 大略近近國務會議를開催하고 正式決定할것으로 推測되다

潛水艦使用案 近近倫敦서調印?

【倫敦十三日發同盟】倫敦條約第

米海軍現有數 報告書를發表

【華盛頓十三日發同盟】米國海軍省은 十三日海軍現有勢力에關한 報告書를公表하엿다 右報告書에서特히 一九三六年七月以後各國의 海軍擴大에反하야 米國海軍은 艦齡超過艦艇을 廢棄한結果 顯著히 勢力을減勢한것을 强調하엿다 이報告에依하면 米國海軍現在의勢力은 總艦數三百六十隻 總噸數約百六萬二千八百七十五噸 艦齡未滿艦艇七月一日現在九十四隻七十四萬九千百四十五噸으로부터 現在七十一隻六十萬二百七十五噸에 減少하엿스며 今年建造中艦에 屬하는 艦艇九十五隻二十八萬八千二百十五噸이라는狀態이다

各國現有數

	現在總隻數	總噸數
米國	三六	一〇五六、八七五
英國	三九	一、三二二、四〇五
日本	二七	七六六、一九六
佛國	二〇	五七一、二三四
伊國	一五	四〇六、三三三
獨逸	五	三五四、四六

東京市萬圓寄贈 三南水災義捐金으로

東京市에서는 今回의 南鮮風水害에對하야 市會에서 義捐金으로 金一萬圓也를 贈하기로 決議하고 十四日 牛塚市長의일홈으로 總督府에 送付되엿다 이로서 十四日現在 義捐金總額은 二十五萬八千餘圓에 達하엿다한다

調査局서立案한 國策統合機關

無任所相을長官으로

【東京電話同盟】軍部提案의 行政機構改革案中 綜合的國策統合機關의 設置에伴하야 그長官을 無任所大臣으로 閣議에列席시킬라는項目은 閣內를비롯하야 各方面에 되리여內閣을 紛糾시키는 結果로되다하야 反對意向이强한模樣인데 內閣制度改革에關하야 前부터獨自의 調査研究를 進行하고잇는 內閣調査局에서는 目的을達할수잇슬것으로 看做하고잇다 即 調査局立案에依하면

一、國策統合機關은 內閣總理大臣의下에 直屬機關으로 首相에直屬시킴
一、右機關의 長官인 無任所相은 下隷機關의 長官으로서首相의 指揮命令을 바들것이나 國務大臣으로서는 他의 閣僚와 互格에列함
一、따라서 右下隷機關의 調査立案에 依한 國策이 閣議에提案될境遇에는 常時首相의 意見으로서 提案됨

右와如한 組織에依하야 國策統合機關의 立案이 閣議에 提案될境遇에는 常時首相과 無任所相은 一體가되어 提案할터임으로 無任所大臣의 意見은 首相과 別個로 提案할것은 아님과 同時에 無任所大臣의 意見은 同時에 首相의意見이된다 即無任所大臣은 副總理이라 性質內容을 띄고잇는것이므로 如斯히하야 國策의一元化 首相의權限强化를 圖謀할수잇슬것이다

本社參觀(十三日)

▲培花女高生五十二名 ▲淑明女校生三十七名 ▲漢川京畿道蠶業講習所生三十名 ▲漢城商業一年生一一〇名 ▲理髮營業組合一〇名 ▲豊川公普生徒百十七名高鎭華氏引率下

人事・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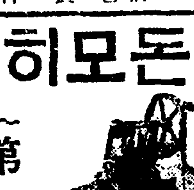
▲篠田李王職長官參觀兼事務協議次十四日午後三時渡東
▲孟永玉氏(完豊金山鑛主) 電光一、〇三八番開通

八面鋒

◇英米兩國이 北中에서 우물우물、九個國條約云云이 또말성에오른다。
◇眞正한意味의 東洋平和와 中國의主權을尊重한다하면 좀더明朗한行動이必要。
◇英蘇間에 海軍協定이成立되야 獨逸이 찡그리는낫빗。
◇佛蘇協定後의 佛蘇關係를본다하면 그다지 念慮할것도업지아니한가。
◇太平洋防備를 制限하자고。
英國에軍備資金이不足한인가 制限이란그물을 처놋코 會計擴張을 꾀하자는말이가。

醫學堂眼鏡店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鍾路壽年會館・電光二二二八番
醫專病院眼科指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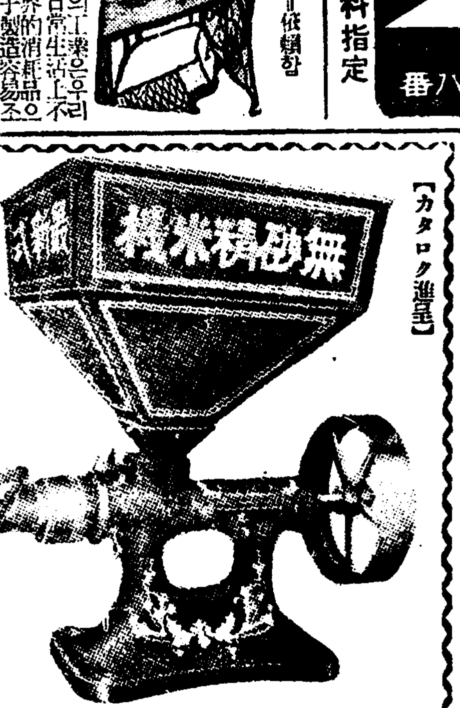
돈모히는조흔家庭工業
信用잇는最高의會社意氣잇는大事業紹進

第一의工業은우리日常生活上不可缺의世界的消耗品으로서婦女子製造容易
第二의工業여러분의家庭에서出動으로할수잇는日用消耗品
株式會社

말더듬이 訥言專門矯正院
京城府梨花町二〇四ノ三

夏屋
合資會社東西洋行賣店
電話本局七四九番 振替京城五九五五番
供提額半 (五日間) 十四日부터十八日까지
門專御造製삐드헨國各
(京城府本町二丁目八六番地)

朝報案內
간질 ...
印章紛失廣告 本人이十月九日本人의水晶四角形印章을紛失하엿기茲以廣告하오니 鐵原邑官田里一五七 朴晋湯
社員 招聘 ... 朝鮮生命湖南支社
求人 ...
恩給 最長期立替 ... 京城光化門通一四七 朴商會

江原道內金剛長安寺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日報社 御指定
金剛山旅館

都賣價
二號機 金十五圓五十錢
一號機 金十六圓五十錢
特號機 金廿八圓五十錢
【カタロク進呈】


京城府岡崎町九二
二和商會
電話龍山九六五番

記念用 印入タオル 賞品用

型錄請求次第無料送呈
京城府長沙洞八拾五番地
東洋染織捺染部
電話光一三二八 振替京城二〇六四

助陽と安

阿房宮三千宮女를巡愛하던精力 秦始王이三千年前服用하던陽虫
國際洋行 振替京城二〇六〇三番

生徒募集 (各官廳ニ就職紹介)
總督府認可
京城第一自動車學校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番地 電話本局五三〇番

兩面書一個로細太字를쓸수잇는 日本字書에適合한 普及型
セーラー萬年筆
PAT. NO. 233605

參謀本部陸地測量部發行
五萬分之一地圖販賣元
東亞商會地圖部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話二三一番
中央館
桃花劇場 電話龍山三三番
優美館 電話光三九五

私立初等學校聯合學藝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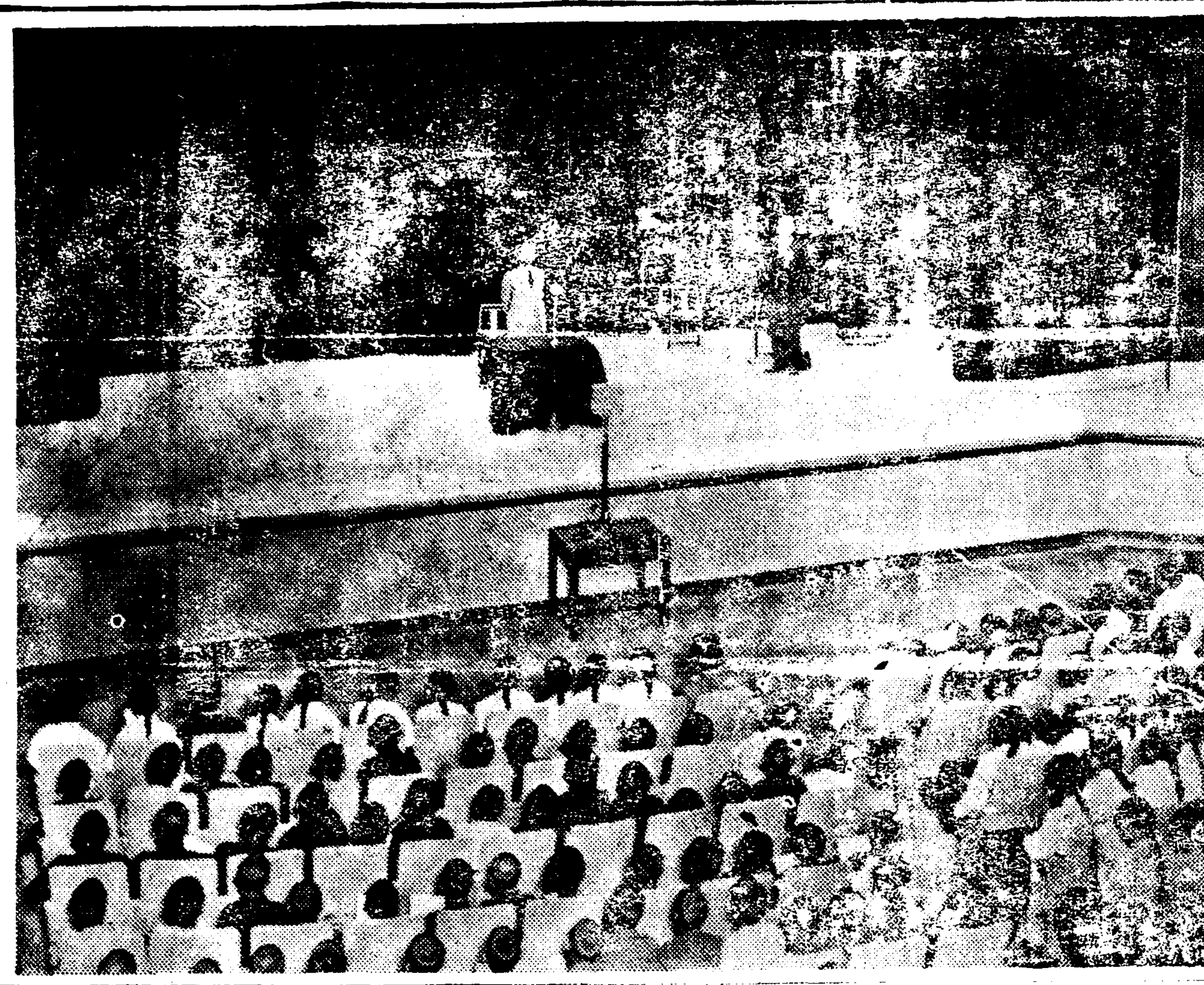
本社後援

二十六校가參加 宛然學藝"올림픽"

天眞爛漫한學童들의競藝 千八百餘名이會合

경성부내 사립초등학교련합학예회(私立初等學校聯合學藝會)는 예정과가티십사일오후한시부터 부민관(府民館)대강당에서스물여섯학교、일천팔백여명의귀여운생도들참집아래성대하게 열리엿다。

이날 느진가을 날세는 구름한점업시 맑게 개인데다가 바람세조차 잔잔하여 우리의 『압날의허망』인 어린이들의이 모임을 축복하는듯하엿다 순서에 드러가 먼저 간친회금번도 당번교장인 보인학교교장 방영근(方榮根)씨로부터 이번모임을열게한 취지설명과 아울러 『모처럼의 이모임이 유종의미가 잇도록 참석한 각학교직원여러분과 및 생도일동은 힘쓰기를 바란다』는 뜻의 개회사가 잇슨다음 래빈측으로 본사사장 방응모(方應謨)씨가 등단、『이 의미심장한 초등학교련합학예회가 금번 제열회로열리게됨에잇서 오늘에만 끄칠뿐것이아니라아프로도영구하게 계속될것인즉 가정의짝이되고 사회의 움이되는 생도제군은 힘써 이학예회를 원만하게 마추는동시 아프로도해마다 계속될 이모임을 래년은 금년보담 또래명년은 래년보담 더욱 떠한서아롬다운 열매가 맷처지도록 하기를바란다。」는 의미의 축사가잇자 만장은 숙연한태도를지어 귀를기우렷다 뒤이어 보인(輔仁)보통학교일년생한명옥(韓明玉)(八)소녀로 부터 『이자리에모히신 동무 여러분 이질거운 우리의 모임을 끗까지 원만하도록 마추어서 우리의 선생님들과및 부형들의 귀대에 어그러짐이 업도록합시다!」 하고양증스러운그러나힘찬권려사(勸勵辭)가잇서 오는 날의 누이 다운 씩씩한태도를 보혓다。 첫!!푸로!!로 리태원보통학교(梨泰院普校)생도들의 『양양 범버궁』、『방아를 떼데굴느가지의 잔조러지고 간얍흔합창이 잇슨다음 순조롭게 진행되여 젹푸로!!를 몬세가지를 팔업시 마치고나니 때는오후 세시반가량이엇다。



★—私立初等學校 聯合學藝會★★★

夜半、無軌道"택시" 書舖에突入破壞

無免許泥醉한自動車部主人이失手 損害는約三百圓

십사일 오전세시십분경에 시내사간정(司諫町)일백사번지『미쓰와택시』주인 김석두(金石斗)(三○)가 운전면허도업스면서 술이잔뜩취하야가지고 자긔자동차를타고 자긔차부운전수 리충범(李忠範)을 동승식히고 도화문에서 종로부압으로 진행중 시내 안국정(安國町)일백오십칠번지 향림서원(香林書院)압헤서 반대 방향으로오는 화물자동차를 피하려다가 운전을 잘못하야 전긔향림서원으로 자동차를 마구들어박아서 전포문과유리창이며 서적진렬장을 산산히 부서버렷는데 인축의피해는업섯스나 손해가 약이백사십팔원이라는바 소관 종로서에서는 전긔 김석두를 엄중취조한후사법처분에 부칠터이라고한다

貨物自動車 낭떠러지에墜落

運轉手의失手·一名重傷

십사일오후열시삼십분쯤에 부내 봉래정(蓬萊町)사정목일번지 서 양정고보(養正高普)뒤로잇는길에 유금록(兪金錄)(二三)이가 운전하는 경(京)칠천사십사호화물자동차가 운전수의실수로 십이삼척가량되는 낭떠러지로 굴러떠러지고 말엇는데 기적적으로 운전수와 차체는 무사하엿스나 뒤에다고잇든 인부로 아현정(阿峴町)칠십이번지에사는 최산(崔山)(二○)이가 머리와 허리에 삼수일간치료의 중상을입엇다

漫步튼洋服紳士 漢江에投身自殺

屍體를方今搜索中

십사일 오전여섯시반가량되여 부내룡산서 김(金)형사가 지난번서소문정(西小門町)송(宋)모집에나타난 강도사건의 범인을잡고저 한강(漢江)인도교에서 목을 지키고잇든중 갑작히 다리를 거닐고잇든중년양복신사 한명이 나는새처럼 난간을 넘어 강으로 뛰여드러가는것을 목도하고 김형사는 곳 호각을불어 부근 사공들을 모하가지고 뻘리배를타고 구하려 드러갓스나 이미 물에 잠겨 버리고말엇기때문에 건지지못햇는데 그서에서는방금시체를찻고저애쓰는중이다

橫領店員被捉

시내 앵정정(櫻井町)이번지의 백오십삼호 정상조삼(井上條三)의 집에서 일보고잇든 강진모(康晋模)(二七)는 십이일상품대금으로 회수한일백팔십원을가지고 그날오후세시오분차로 대판으로 가다가 부산서의 수배로부산수상서(釜山水上署)에잡히여서 십삼일본정서로 압송하여왓다고한다

白茂線開通

十六日부터營業

벌서부터 부설중에잇든 백무선(白茂線)연암—유평동(延岩—楡坪洞)사이 사십삼키로는 지난십삼일 시운전을한결과 극히 조흔성적을 어덧스므로 모든준비를 정돈해가지고 오는십육일부터 일반접도운수를 개시하기로되엿다 그리고 새로생길정거장은 다음과 갓다한다。

▲延岩(既設)▲庄松▲上壇▲三社▲天水▲下黃土▲上廣坪▲下廣坪▲楡坪洞—以上

册肆에서出火 紙物舖까지延燒

十三日夜、鍾路三丁目大火

십삼일 오후열한시 반경에 시내 종로삼정목 팔십번지 서적상강범향(姜範鄕)의 집에서 불이나서 린접한 유응식(劉應植)의 지물전(紙物廛)까지 맹렬한 기운으로파들어갓는데소방대와종로서원의 힘으로 십사일오전령시오분경에 겨우진화되엿다 변돌이층집일동이 탄것으로 책점은 전소되고 지물점은반소되여 손해가약삼천오백원이라고한다 불난원인에대하야는 십사일종로서 영정(永井)사법주임이 현장에나가서 조사하엿스나 밤중에갑작히이러난불이되여 처음불난곳이 책점인지 지물점인지도분명치안코 그원인이 흑은 방화의 혐의도 업지안허 방금전긔강범향과유응식두사람을 모다검속취조중이다 그리고보험은 유응식이가 횡빈(橫濱)보험에 사천원을들어잇다고한다

和解酒席上에서 酒朋을亂打致死

寧遠郡의痴情慘事

【平壤】녕원군 장백면 강수리(寧遠郡長白面康水里)일백오십사번지 강선흥(康善興)(二七)은 십일정오경에 동리 광산인부 조석형(趙錫鉉)(二○)외 네명과가티 동리 친구 박성주(朴聖柱)(假名)의 집에서 자든중 전긔 다섯명은 강선흥이가 박성주의처와 연애관계가잇다고 오해하고 구타한 사실이 잇섯스나 사실무근한것이 판명되여 일단 화해가 성립된후 다시 화해술을 마시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또 다시 강선흥을 난타하여 죽게 햇스므로 다섯명은 녕원서에 검거되여 취조를 밧고잇다한다

鹿島丸의遭難原因 船體腐敗·定員超過

會社側態度는依然無誠意 遺族代表各界에陳情

【仁川】세상의 이목을소란케하며 주목을이끌고잇든 록도환조난과륙십여명의 희생자를내인사건은 회사와유족간에대한문제가 용이히해결될가망이업고 도리혀 중대화하야 인천의 유사이래에 처음보는 중대문제라한다 더욱이 가장주목되는사실은 회사측으로부터는 정원칠십일명에 승객이 륙십삼명밧게업섯다하야 정원을 초과하지아니하얏다고 주장하고 잇스나 유족측의조사한바에의하면선객만도칠십륙명에 달한다하니 과연 칠십칠명생령을 수중고혼이되게한 이조란사건이 여하한귀결을 지여줄지는 가장주목된다는데 유족측에서는 대표자로써리명호(李明鎬) 리원남(李元男)량씨를 선거하야 진정서를 작성하야 체신국(遞信局)과경긔도와 인천경찰서에 각각제출하엿다는데 진정서의 내용은다음과갓다

一、遭難事實(陳情書內容) 仁川汽船株式會社의 使用船鹿島丸은 去十月二日 忠南瑞山郡鳴川을 離陸하야 仁川으로航海中 八尾島近海에서 突然船體가 轉覆沈沒한것으로 그直接原因이 不明하다

一、當時의暴風으로 起因한 不可抗力의遭難인지

二、船舶의不完全과 又는船員의過失로써 機關의故障으로因한것인지

三、(一 二)의理由가 併合되엿는지도 不明하나 鹿興島近方에서 機關室로부터 大爆音을發하는 同時에 進航을停止하자 船體의動搖로轉覆된事實은 明確하다

二、遭難責任 仁川汽船會社와 朝鮮海洋社間에 乘客과 運賃의 競爭으로 無理한 速力을내이엿다는것이 事實인즉 責任은 全然會社側에잇다

一、鹿島丸은舊船임에도不拘하고 仁川 鳴川間의所要時間이 他船에 比하야 三十分乃至一時間이나速한것

二、暴風이 일어낫슴에도不顧하고 海洋社船을 압스랴고 速力을 내이엿슬뿐아니라 暴風時의 避難所인 鹿興島에寄港치아니한것

三、平素에도 定員以上의乘客을태운것 또는船長이 當日의 乘客名簿를 喪失하야 乘客數가 分明치못한것

京城神社例大祭

餘興프로그람도決定 十四日밤부터一週間擧行

경성신사는 이번에 국폐소사(國幣小社)로승격하야 십사일부터 압흐로 일주일동안 성대한 제전(祭典)이거행되는데 경성부내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모다참가하야 일대일치의신사제전은 금번에특별히 성대하리라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폐소사로 승격한축하의로 어렵게 봉고칙사(奉告勅使)가 참향하야 봉폐(奉幣)함으로 더욱장엄한 제전의식순(式順)이 잇스리라한다 그리고 여흥(餘興)프로그람은 다음과가티 결정하야 경성신사압헤잇는 광장에서 순서대로 진행하리라한다

餘興프로그람

十四日午後七時부터 詩吟劍舞
十五日正午부터一時까지 淑松女學校生徒
同十二時二十分부터一時까지 本券番
同一時十分부터四十分까지 漢城券番
同一時五十分부터二時三十分까지 本券番
同二時三十分부터四時三十分까지 東京小女歌劇
同七時부터三十分間 三曲合奏
同七時三十分부터九時三十分까지 朝鮮券番小女歌劇
同午後七時부터十時까지 씨름
十六日正午부터二時까지 豊年踊
同二時三十分부터四時까지 券番
同午後四時부터五時三十分까지 東京少女歌劇團
同午後七時부터三十分까지 三曲合奏
同午後七時四十分부터九時三十分까지 朝鮮券番少女歌劇
十七日午後二時부터五時까지 詩吟劍舞
同午後七時부터十時까지 時代劇
同午後七時부터十時까지 씨름
十八日午後二時부터五時까지 時代劇
十九日午後二時부터五時까지 時代劇
同午後七時부터十時까지 씨름

表面으론振興會 裏面엔赤色工作

長城讀書會事件豫審終結 四名만公判에廻附

【光州】장성군삼계면(長城郡森溪面)일대의 농촌청년들을 망라하야 표면으로는 농촌진흥회를 조직하고 농촌진흥의 지도자가되야 잇든 송병운(宋炳云)(二○)등수명은 적색비밀결사를조직하고 적색서적을 공동구입하는한편 동지양성과 동지귀합에 노력하야 오다가 전남 경찰서원에게 발각되야 작년 삼월경에 장성군 일대에서 청년오십여명을 검거하야 여러달 동안을 두고 전남도 고등과 안등(安藤)수사계주임이 담임취조를 마치고 치안유지법위반의 죄명으로 광주검사국에 송치하는동시 예심에회부되야 이래취조를 받든바 십일일에종 사명만이유죄결정되야공판에회부 되엿다는데 그들의주소성명은다음과갓다한다

▲全南咸平郡月也面也山里 農業 李鍾泰([illegible])
▲全南長城郡森溪面舟山里 農業 宋炳云([illegible])
▲同 上 宋炳一([illegible])
▲同 上 宋炳藥([illegible])

關東軍全將兵도

南朝鮮水害民에義捐

이번남조선 풍수해의 참상에동정하야 관동군에서는 모다용돈을 절약하야 일천삼백오십원을 십사일총독부에 우송하여왓다

이복가망은 소화고단 짐기고 물이빠지고 비스갈증고 가삼이씹니다

無錢取食

시내 원정(元町)이정목일백사십륙번지 『평키』회공바 원긔(朴元基)(二七)가 십사일오후 여덜시부터 십사일오전아홉시까지에 시내종로삼정목일백사십오번지 신범희(申範喜)의 음식점에서 도합푼도업시 약륙원어치의 주식을먹고나서 주인이 술갑을요구한즉 자긔는 본정서형사인즉 본정서에와서 돈을바다가라고 위세당당하게 뛰내다가 결국종로서 형사에게 발견되여 무지장으로 끌려들어갓다

卅萬을目標로 平壤墓地新設

【平壤】평양부에서는 금년도에 륙만원의 긔채를어더 대동군룡산면 조전리(大同郡龍山面助田里)에 묘지용지를 구입하기로되여 일즉부터용지매수를 교섭중이나 지주측에서 강경하기때문에 토지수용령을 수속햇다한다 경비륙만원은 대체로일만원은 설비비로하고 오만원을 용지매수비로할 예정인바 본래의 예정보다 규모를크게하여 인구삼십오만내지 삼십만을 목표로계획을 진행중이다

私立校授業料 納入成績不良

【平壤】평양부학무계에 부내각 공사립보통학교에서 모혀온구월말일현재 수업료납입상태는 공립보통학교에 미납자가 한명도 업고 소학교에는 미납입자가픽 만타는것을 알수잇다 그리고 공립보통학교 재학자 일만삼백 오십구명중 미납자는 업고 소학교는 오천칠십구명중 연인원 백이명의 미납자가 잇다 그리고 사립보통학교에서는재학자 이천구백오십이명중 이백삼십구명 사립초등 각종학교재학자 일천삼백이십사명중 이백이십오명의 미납입자가잇다한다

天氣予報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는晴 明日도晴一時曇

昨日最高 二二度五
〃 最低 七度一
今朝最低 八度四
今日正午 一八度七

運動競技

普專優勝

神競專門蹴球 十二對二로法專敗

朝鮮神宮體育大會蹴球最終日의 專門部決勝戰은 十四日午前十時五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열린바 普專軍은壓倒的優勢로結局十二對二로 法專軍을 이겨優勝하엿다

孫基禎君 레코ー드에吹込

백림(伯林)올림픽대회에 단연세계의 강적을 물리치고 영예의 패권을 획득한 손긔정(孫基禎)군은 불일래에 조선으로개선하게되엿는데 이번에 콜럼비아레코ー드에 그가『스타ー트』할때부터『골』까지일으기까지의 소감즉 우승의감격(優勝의感激)을 취입하엿다한다

◇專門部決勝 普專12 法專2 (前6……1、後6……1)

普成專門對法學專門決勝戰은 同日午前十時五十分부터 李榮敏主審 片茂英、金龍圭(線審)三氏審判下에 法專先蹴으로 開始되엿는데 普專軍은 壓倒的優勢로 十二對二로 法專軍을 壓倒하야 優勝하얏다(所要時間九十分)

一더 一般部決勝戰의 對平壤蹴球團戰은 同日午後三半에行할터이다

【寫眞은 優勝한 普專蹴球팀】

【法學專門】
GK 大泰
FB 金谷、金朴
HB 李李、表許
FW 洪朱、李尹

【普成專門】
GK 再
FB 相
HB 李朴
FW 李金、金宋、朴裴、林孔

蹴蹴蹴 20 0 6
門隔自 3 5 2

中等럭비戰 養正勝捷

對京師準決勝

朝鮮神宮體育大會럭비中學部準決勝의 養正高普對京城師範戰은 十四日午後一時부터 上野氏審判下에 養正先蹴으로開始한바 前半三對三、後半三對三의同點으로 延長戰에드러가 養正軍은貴重한一드라이를어더 結局九對六으로勝捷하엿다

【京城師範】
FW 鈴木、淳塚、實祐、田詰、田田、上野、保
華 男在
HB 鄭、久安、林高
TB 飯安、嚴松、日池
FB 本尾、平安

【養正高普】
FW 李善、諸九、范鈫、康媛、秀哉、國男
HB 俊元、載龍、東元
TB 鍾成、秉福、朴徐、李金、柳丁
FB 宋李、馬尹、金李

大豫對法專籠球戰

十七、八兩日에開催

京城帝大豫科對 法學專門 定期籠球戰은 來十七、八兩日間에行할터인바 第一日은午前十一時부터 京城帝大코ー트에서 第二日은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對戰케되엿다

仁商15 咸商0

神競中等部野球第一回戰의 仁川商業對咸興商業戰은 十四日午前九時三十五分부터 京城球場에서 石井(球)橋口、津島(壘)三氏審判下에 仁商先攻으로開始한바 十五對零으로 仁商勝

咸興(000000000)—0
仁商(301421310)—15

◇投捕(仁商)岩崎、張榮植(咸商)東、木部

中等陸上代表大阪에

來十八日 大阪에서열리는 東西中等陸上對抗競技大會에 出戰하는 西部代表張聖壽(養正)、金裕澤、印康煥、李鍾珠(以上培材)、羅俊永(光成)等諸選手는 十四日午後三時 京城驛列車로 出征하엿다

運動界人事

▲平壤高普蹴球部一行八名은 同校敎諭崔成淳氏引率下에 十三日入京 人事次來社(貫鐵町旅館에投宿)

▲黃海道陸上代表一行十四名은十四日朝入京、貫鐵町鐘路旅館에投宿

補血强壯劑 參茸トニク

包裝 250G 半月分 ¥2.80
500G 一個月分 ¥5.00

(文獻試供品無代進品)

學者의研究와興味의中心이되여잇든 鹿茸人蔘 陰羊藿의諸元素는『參茸トニク』에限하야 完全히飽和되여잇습니다

從來에 舶來品及廣告主義의强壯劑가 慢性患者에게 果然 어느程度의治療効果를 보여주엇는가? 疑問입니다

時代의要求에依하야 産出한『參茸トニク』를試用하시요 그神秘한作用、偉大한効果는『參茸トニク』만이 가지고잇는자랑입니다

主治

虛弱腺病質之人、貧血及萎黃病之人、手術後貧血之人、陰萎早漏夢精等之人生殖器衰弱之人、神經衰弱之人、虛弱姙婦、産後衰弱之人、病後衰弱之人、一般子宮病及ヒステリー之婦人、消化機能不良之人、食慾不振之人、虛弱乳兒發育不振之小兒、健忘早老之人、肺結核、眼精疲勞心臟衰弱、心悸亢進重病後耳鳴、二日醉。

類似名만슴니다「參茸トニク」를記憶하십시요 百貨店、有名藥店에잇슴니다

實驗推奬

醫學博士 申弼雨先生
醫學博士 橋本吉藏先生
醫學博士 玉貴彬先生
醫學博士 尹致衡先生
醫學博士 李世珪先生
醫學博士 姜日永先生
藥學士 都逢涉先生

美味·造血·滋養·强精劑
人蔘·鹿茸淫羊藿主劑
參茸トニク

京城鍾路三丁目
慈善堂製藥株式會社
電話光二一三五
振替京城一九〇七
私書函光化門二四

秋

慢性胃腸病治療의好季

今こそアイフを服むべき秋！

(只今이야말로 아이후를 服用하여야할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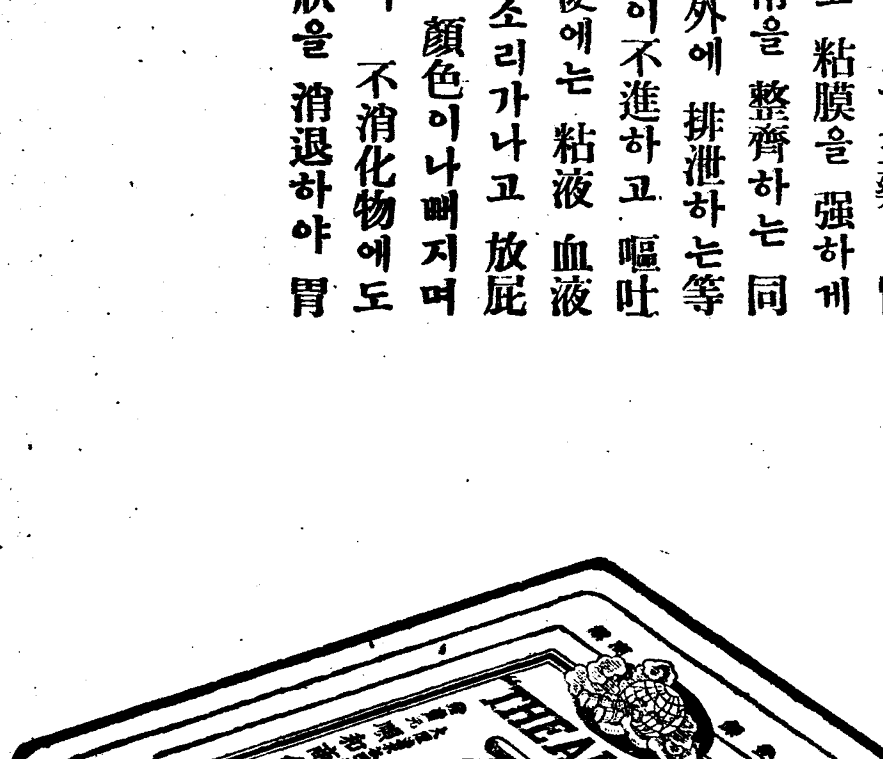
服んで效果のあがる秋！

(복용하야 效果가잇슬가을)

機能恢復에拍車를加하라

長久한殘暑로헤매든胃腸을 近日의秋冷으로 겨우 本來의狀態에 歸還할라고합니다 緊張되는心身 昂進하는 自然治癒力 컨디숀은 萬點입니다 只今이야말로 治療藥 아이후 의 一鞭에機能恢復에의 拍車를加하야 一擧에 健康線으로 前進할것입니다 傷한胃壁 진무러진 腸管도 治療하야 오래동안의憂鬱 食慾不振 消化不良 腹痛 泄瀉에도 그러타면服用치 안켓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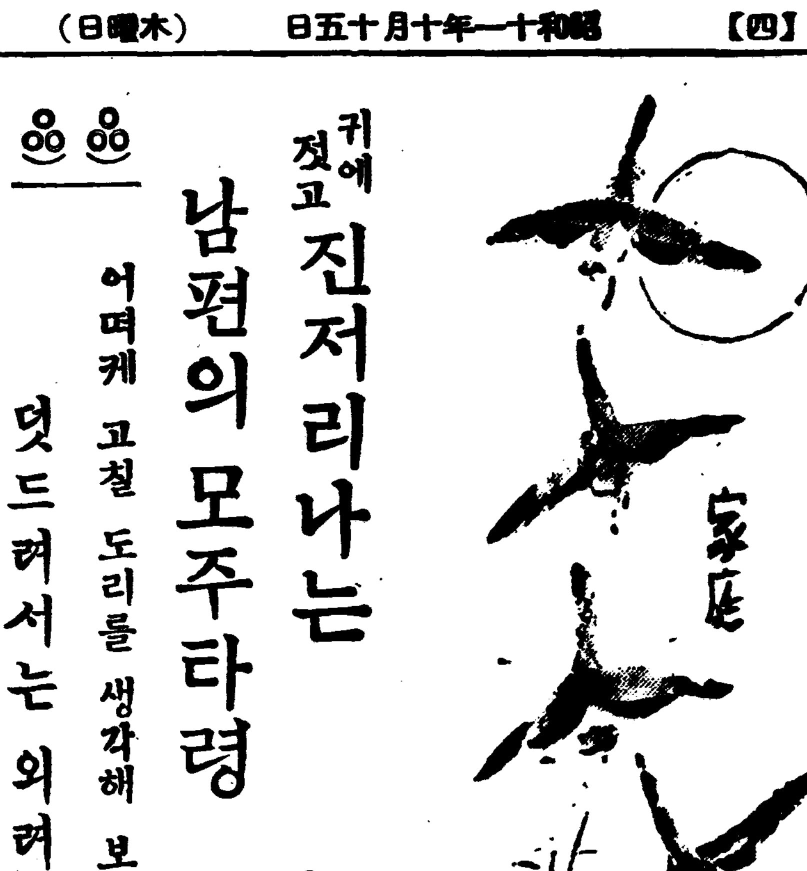
治療藥 아이후에는 病原對症二重作用이잇고 主藥이胃腸內壁瘡面에 沈着하야 炎症을治癒하고 粘膜을 强하게하고 弛緩을緊縮식히며 分泌及蠕動異常을 整齊하는同時에 腸管內의有毒物質을 吸着하야 體外에 排泄하는等 廣汎한 病原治療를 營爲하므로 ▽食慾이不進하고 嘔吐噯氣가나서 ▽恒常泄瀉와 軟便으로 便에는 粘液 血液膽汁을석그며 헛배가 부르면서 꾸르럭소리가나고 放屁가 만코 下腹痛이잇스며 ▽元氣衰하고 顏色이나뻐지며 神經過敏으로 短氣가되고 ▽少量의술과 不消化物에도 곳泄瀉하는 慢性胃腸病의 不快한諸症狀을 消退하야 胃腸機能의 健全한活動을 助成합니다



藥價			
四日分	七十五錢	十七日分	三圓
八日分	一圓五十錢	特製十一日分	五圓

▷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습니다◁

發賣本舖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順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二八八番 電話(小石川)四〇一〇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三七六五番 電話七六〇八番



귀에젖고 진저리나는 남편의 모주타령

어떠케 고칠 도리를 생각해 보자

덧드려서는 외려 불리

남자로 술을 안 먹는 사람은 거의 희한하도록 술들을 만히 먹지오만은 안악네로 보아서는 그처럼 불행한 일이 다시 업슴니다. 술을 못 먹어서는 술먹을 궁리로 정신이 업고 술을 먹어서는 취한 김에 정신이 업스니 그런 남편으로서는 안해를 위하야 조금이라도 위안을 줄겨를도 업거니와 술에 돈도 업새고 몸도 버려어 집안조차 엉망이 되야 버리고 맙니다그려. 그러니 어찌합니까? 어떠케 그 술을 못 먹게 하는 도리는 업겟습니까?

술을 자신다고 상을 찡그리고 쨍쨍거리기 시작해서는 점점 더 덧치어 한잔 먹든것이 두잔먹고 두잔 먹든 것이 석잔 먹게되고 맙니다. 왜그런고 하면 어쩌다 술 한잔을 먹고서도 그대로 집에를 들어가기가 실흐니까 더 오래 안젓노라고 더 먹게 되고 더 취해나 가려고 더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아귀다툼을 말고서 차라리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요. 아니, 그보담도 조혼 낫츠로 마저드리어 편안히 누이고 고히 잘틀게 하십시요. 그러면 그사람도 사람인 이상 도리어 미안도 하고 죄스럽고 할 것입니다. 다소의 인정이 잇는 남편이라면 석잔을 두잔으로 두잔을 한잔으로 주려서라도 먹을 것입니다.

×

그러나 술이란 고약한 음식이라 그러케 랑심이나 동정으로만 제재될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술을 금지하시려는 안악네의 수단도 좀 더 철저해야만 될 것입니다.

(一) 술도 시장한 때만 히 먹고 시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이나 군음식을 늘 준비하야 노하두고 시장치 안케 하는 것이 조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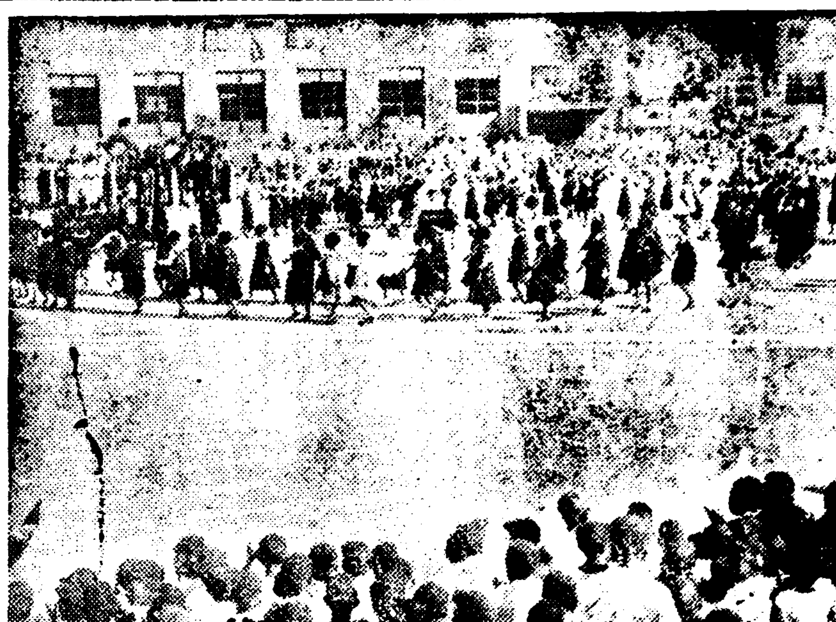
(二) 또 술먹는 사람들은 아조 입이 백이어 고처기가 어렵기때문으로 아첨 저녁차리리 밥주를 때 장하는것이조켓습니다.

(三) 무엇보담도 술의회푸리 꿀꾸리로를 만히먹는 것이 아닙니까? 화나곯울지든지말것은 물론바게서 당하고 들어 오거든 잘 위로하야 좋어 주도록 하여야합니다.

×

술을업마를 먹든지 집안에서만 먹으면 그러케 그 것이 문제될것도 업습니다 밧게서 끈드래만드래가 되는데 돈도 만히 들고 또 딴 변통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는 술을 집안에서 자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연히 바아지를 글거서 밧그로 내여 보내지 안악네의 손핸이지 이라고는하나도 업습니다.



於義洞公普運動會

시내각보통학교의 운동회가 거이다 끗낫습니다 이것은 마금이나 하는드시 열린것이 어의동공립보통학교의 운동회입니다 제작 시사일 아침부터 동교교정에는 동교남녀생도와 학부형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엇습니다.

兒童劇

행낭아이 ⑤

金虎俊 (全一幕)

(金서방下手로나오며)

金서방『아니 외들이러니 머-업서젓니 머-업서젓니』(생선을드렷다)

玉順『네이형을 훔처 갓서요』

金서방『응? 인형을? 이인형이아니냐』(인형을보인다)

順子『(기뻐뎀벼바드며)네 이인형이야요 어데잇섯서요 김서방』

慶伊『어데잇섯서요 그런이 갈첫든것을 어떠케!』

金서방『아니그게 무슨소리냐 이인형이 어떠케 되엿니』

玉順『네 저-聖玉이가 훔처갓서요』

金서방『聖玉이가? 아니다 너의들 잘못알엇다 지금 고양이가 물고나가는것을 내가빼서 오는길이다』

順子『고양이가요? 그것봐 聖玉이는 그런애가 아니라니까』

玉順『응 참 우리는 聖玉이가 가진줄 알엇구나』

金서방『그러면 너의들 잘못하엿구나 어서가서 잘못 햇다구 일러라』

順子『慶伊야 빨리가보자 그무서운 聖玉이 아버지가 갓스니 聖玉이는 꾀-니 매만맛겟구나』

慶伊『참 내가잘못햇다 그런데 어떠케하니』

玉順『멀 어떠케 우리가서 잘못햇다구 빌지 꾀-니우리가 그애를가지구 그랫구나』

順子『그것봐 이전가서 잘비러야지 얼는가자』

金서방『너이들빨리가보아라 그무서운 성옥이 아버지가 무슨일을 하는지알겟니! 아저-』(아모 聖玉이아버지 오신다』

(아모말업시 聖玉이아버지 지나가려고한다)

順子『아 아범 인형이잇서요』

(聖玉아버지깜작놀래며)

聖玉아버지『멀-인형이잇서 그러면 聖玉이가 안가저 갓단말이냐』

慶伊『네 제가잘못 햇습니다 용서해주세요』

金서방『자네혼것네그래 내가생선을 사가지고 오다 고양이놈이 인형을 물고다라나는것을 쫏차가서 빼서 가지구 와보니……』

聖玉아버지『참 잘되엿네 얼 聖玉이게 알려주어야지』(聖玉이아버지 기쁜얼골로 上手로 속속히드러간다)

順子『참 金서방 고맙수 못차젓드면 꾀-니 聖玉이만 혼날것을!』(金서방 上手로 드러간다)(멀리서의소리)

聖玉아버지『聖玉아 聖玉아 아니聖玉아 얘가어딀갓서!』

順子『아니? 聖玉이가 업나보다 우리얼는가보자』

泰植『(下手로드려오며)얘 順子야』

順子『응? 聖玉이 오빠유 저-큰일낫서 聖玉이가 어딜 갓나봐』

泰植『順子야 인형은 차젓다지 엇수?』

順子『응 그런데 벌서 다-알엇수?』

泰植『응! 그럼어서 聖玉이를 차저보아야지』(바뿐듯이 上手로드러간다)

"선 창"

동그란 선창으로
조-그만 섬들이
오고 가는데
솔나무만 파-라케보이는
적은 섬들은
동네가 잇는지
갈매기는
얏게 나르지안네.

(곱슨사람 오장환)

農村風景

第一回學生美展初等部優選入賞者 協成普校 明正王·李圭協 朴小斤貴 合作

다시한번 귀익힐 『영양소』에 대하야

『비타민』종류의 가짓수

음식물의 영양분이라하면 단백질(蛋白質)과지방(脂肪)과탄수화물(炭水化物)에 노나잇서서 모든것이 체내에서 소화되여피가되고 살이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밧게 뼈와뇌(腦)의 소용이되는 얼마간의회(灰)가 필요한것입니다 그러나『비타민』이라는것이 발견된뒤에는 식물이나요리에대한 생각이모다 달러저버리엿습니다 지금까지의가리 각각 그성분의 열량(熱量)을 조사하야 순수한 물화학(그람)을 섭시(攝氏)일도로 데일 필요한열을 일칼로리-로하고 이칼로리-라는 것이만흔 음식이 조혼음식으로 생각되여왓습니다 분량으로 볼때는극히 적은것이나 그영양으로 볼때는 그사람의 건강과 불건강을 결정하리만치 중요한것이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에이』는 지방에만용해되는것입니다 만흔것은 천연『빠터-』계란(鷄卵)속 노른재동물의 창자등으로 고기에는만히잇습니다 그러나 도야지 고기에만은 이것이 전연업스니 주의하는것이 조흡니다 만약『에이』가 부족하면 발육이 어둡고 내증병을 이르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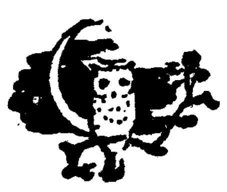
『비타민삐-』는 비타민중에서 제일먼저 발견되엿는데더우면업서지는것과편운데 견듸는것두종류가잇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각기병이생깁니다 쌀의눈(胚芽)맥주의효모(酵母)계란노른재 등물찻지가튼것에는 만히잇습니다

『비타민씨-』는 신선한 과실가운데 만히포함되여잇는데 이것이 부족되면 괴혈병(壞血病)이라는 병에걸립니다. 이병은피가서기시작하야 니ㅅ뿌리로 부터피가나고 수족 마듸가 아퍼서 살수업게됩니다 무 배추나레몽집 귤 시금치가튼데 만히잇습니다

『비타민띠-』는 우유 간유(肝油)중에잇고 김 버섯 조개가튼것에 만히잇스며 이것이 부족하면 반신불수가됩니다

『비타민이-』는콩나물가튼데만히잇스며 엿기름가튼데도 만히 잇습니다 이것이 부족되면 번다른 증세도업시 아이를 배지못하는수가 잇습니다

連載野談 (不許轉載)



布衾記 (二八)

申鼎言 作 · 金熊超 畫

마름캐든총각 (二四)

대저 그 청아한 음성으로써 선화공주에게 산수의 풍경을 구경하고 가기를 청한 사람은 선화공주와 동행하는 그 젊은중이엿다.

그 젊은중은 선화공주와 동행한지가 여러날이엿스나 오직 몸으로써 선화공주를 위하고 위로하는 행동은하얏스나 말을 부치기는 선화공주를 처음 만날때한번 그뒤로는 입을 빼긋한일이 업섯다.

그런데 그 젊은 중이 별안간에 선화공주에게 산수의 경치를 구경하고 가기를 청한것은 실상 산수를 구경 식히려는듯이 아니라 선화공주의 말문을 여러 놋키 위한것이오 선화공주가 당한 그액운의 때려움을 말하겟다는것은 선화공주의 마음을 잇겟자는 파연 움치한 뜻생각까지 일어나게 되엿다.

그러나 선화공주가 수레에 내리킨 뒤에도 그 산수의 풍경을 구경하자는것이 아니오 그젊은중이 자긔의 액운에 대한 설명을 듯기 위한것임으로 잠시서서 원근산천의 짓터가는 가을 풍경을 살핀후 등뒤로는 산국화(山菊)가 여긴(叢)이 울타리와 가리 둘니고 압흐로는 맑은 시내물이 은쟁반이와 가튼 히고고흔 모래언덕을 둔어 트려가며 흐르는 그윽한 잔듸 방언덕을 차저 자리를 정한후 단정한 몸맵시로 안고 그 젊은 중은 선화공주가 안진 자리를 휘신 떠러진곳에 단정히 섯다.

선화공주와 그 젊은중은 다가리 입을 담울고 다만 맑은 물결이 어엽븐 문의를 일으며 쉬임업시 흐르는것을 넉을 일흔듯이 내려다보고잇슬뿐이엿다.

이에 선화공주와 그 젊은중이엿다.

이때 선화공주는 맑은 솔바람소리와 물소리가 한데 합처서 청아한 풍류소리와 가티들리는것이 우선 마음에 상쾌할뿐만아니라 죽어도 눈을 감지못하고 죽게되든 그사나운 액운의 때려움을 듯고저하는 생각이 것잡을새 업시 치밀엇다.

그래서 모든 체면을 도라보지아니하고

『여긔서 수레를 잠간 내릴터이야!』

하고 선화공주는 필경 수레를 머물기를 명하얏다.

이에 선화공주는 수레를 내려 잠간 사면을 살펴새 우흐로는 푸른산이 병풍과 가티 둘너잇고 아래로는 맑은물들을 거울빗과 가티 힌돌을 시처 흐르는것이 보이엿다.

『흥, 산맑고 물고흔(山明水麗)곳이란 엣사람의 글귀가 이곳을 두고 일커른 말이로군.』

하며 선화공주는 아닌게 아니라 한번 보암직한 산수의 경치인것을 무한 사랑하며 또한 그젊은중이 산수의 아름다운것을 보는 눈도 범연치 아니한것을 은근히 탄복하얏다.

선화공주는 수레에 내리자눈에 처음 부듸치는 그 산수의 풍경을 아니볼내야 아니볼수업슴으로 자연히 그 산수를 보게되고 또는 그 산수의 그윽히 아름다운 풍경을 사랑하는은 물론이오 선화공주를 배종하는 하인들도 그긔이한 경치에 취한듯. 각각 기픈 침묵에 잠기엿다.

아아. 긔이한 향내!

바람결을 짜러 긔여한 향내가 풍기는것을 처음은 산국화의향긔로 알엇다가 나종에는 선화공주의 몸에서 풍기는 향내인 것을 알엇다.

그 젊은중은 그긔이한 향긔에 취한듯. 아지못하는중 두뺨에 홍조(紅潮)가 오르고 겸하야 뜨거워지는 살긔운이 풍기기 시작하엿다.

이때 선화공주의 몸에서 풍기는 아담한향긔와 그젊은중의 몸에서 풍기는 뜨거운 긔운을 한데뭉치어 한곳으로 모든듯한 명랑한 목소리로써

『공주아기씨! 산수의 경치가 가히볼만하지 안습닛가?』

하며 그젊은중은 지극히 단정한태도로써 말문을 열어 선화공주의 대답을 청하엿다.

선화공주는 그젊은중이 말을 부치는데 대하야 또다시 가슴이 울넝거리지고 얼골이 확끈하여지며

『어찌할고. 말대구를 하자니 매우 낫둥하고 말대구를 아니하자니 내가 알고십고 듯고 십흔 말을 자서히 들을수가 업고.』

하며 매우 처단하기가 난처한 태도를 보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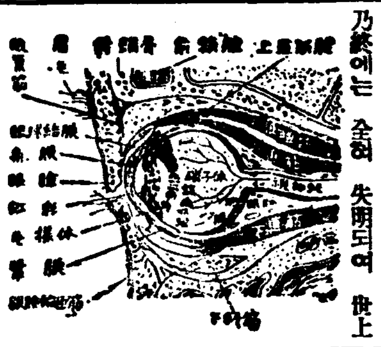
放心하면漸漸

◎ 청명관이

一日速히곳처야할 諸眼疾의療法에對하야……

◆療養說明書를 無代進呈합니다

十五夜明月 이라도, 구름이끼면빗을일흐나, 內障眼은雲翳한 瞳子에구름이끼다. 그호리는障害物의色에따라, 白內障, 綠內障 黑內障이라고 病名이달으다 청명관에 걸여슬지라도 無痛때에는 物體를보기에, 좀거북한듯하나 治療를잘못하야 자칫하면 白晝라도 어둡컴컴하게되여서, 乃終에는 全혀 失明되여 世上이 暗黑으로되는사람이 엇지안타모저럼多大한治療費를쓸대라도



自己의 現在를 나어잇는청명관이는元來 如何한性質의 眼質 인가그原因과 病理를大略알지못하면 日常의 治療養生方法에도잘못되거나 又 治療의方針을 잘못하는수가 잇고 또 治療時機를 逸하야 失敗에 빠지는사람이 잇슴은 可嘆할일이다 當先患者가 第一 徹底的으로 하지안어서는 안이될일은청명관이는 外部로부터 傳染한眼疾과 달러서自己의 體質과畜積病毒 때문에 눈속으로부터 생긴眼疾이다 그래서病名도 청명관이라하야 內障眼이라稱함으로 進步된眼科專門醫學에잇서서도, 內障眼에는外用藥보다도 內服藥이適當하다고 말하나

眼症의內服藥 으로愼重且熱心의研究를 거듭하야 苦心創製된지十數年間에 於今無比의良藥이고 眼疾中가장적절되는 內障眼을 主로하야 紅彩炎, 眼睛炎, 眼底炎, 眼精疲勞, 慢性結膜炎, 網膜出血, 夜盲, 慢性眼疾等에도效力이잇다 自宅에서

經濟的으로 治療가能히 되기로 時間이비교적으로 遠隔不便의地方의患者도 非常하기때하며 大患眼疾은 治療의時期가緊要하니 一日이라도速히 本舖를尋訪하시도록 將來를爲하야 마음으로忠告하나이다.

청명관이되는 眼疾은 처음에 어떠케될가?

청명관이 其他眼疾의 原因과 病理의알기쉽게仔細한것, 飮食物의可否, 選擇法日常의養生治療의 注意에 이르기까지 親切히쓴 說明書는, 公益을爲하야 無代送呈中이니, 兵庫縣 明石市 岩屋神社前 進光堂本家로 朝鮮日報 에서 보앗다 明記하야 葉書로 照會하시라 곳 全部無料送付함

脊髓病 (척수병)

一生의後悔업도록 今日곳葉書로

脊骨變形 · 骨腐敗症 · 骨節痛 · 化膿腫症 · 痲痺 · 땅기는症 · 腦의障害 · 류마지스 · 神經痛

腦髓가아래로延長하야, 背骨의中을한갈내 색기와가티通하야, 知覺神經과運動神經의 中樞인脊髓로되여잇는, 事物을생각하고判斷하거나하는것은, 腦髓의作用이나, 뜨거운火箸를쥐인때, 생각할새도업시곳도ㅅ커나 다리가밋그러진瞬間에, 넘어지지안으랴고 하는等敏速한擧動은, 脊髓神經의機能인故로, 脊髓病에걸니면, 陰險可恐할病毒때문에, 身體의柱礎인背骨이漸漸굽어서佝僂로되는等, 身體의姿勢가부서지는同時에脊髓가病的變質되여甚한것은썩어서膿出이되고 知覺神經과運動神經에, 全身的故障을生하야, 압호든痲痺되고擧動이鈍하며, 手足도不隨意로되여, 往往步行도困難하의저릅바리로되고, 腦에도害를끼치어서, 腦力의發育을나부게하며, 白痴로되는수도잇스나, 이放心못할脊髓病과, 苦生甚한류마치스神經痛에有名한良藥이잇다아무리大金을써도, 驀座藥과姑息的治療로는, 一時에곳치게할뿐으로언제까지든지, 根治안되여病은도리여進行惡化할뿐이니, 決心하고, 病이되는原因인體內의病毒을全部掃淸치안으면안이되나게을니하지말고 一日이라도速히適當한療法과良藥을選擇함이緊要하다. 等閑히하면意外인不良廢疾로되는此病은, 年少者에만흠으로特히 保護者父兄은勿失好機토록注意하시기바라나이다. 兵庫縣明石市中町本通太平堂脊髓藥本家 로便紙하되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明記하야 주시지요, 說明書養生法全部無料로送呈합니다

再發의危險을避하야……

腦溢血 中風 (自宅治療) ㊤

四十歲에걸니는 動脈硬化、高血壓의解決

中風症의한숨 이라고한 腦溢血中風은 한번나엇드래도, 再發하기쉬운性質의病으로再發하면 반다시, 最初보다훨신더重하야저서, 再發後에 죽는것이오, 엇다生覺하야서全快說貿까지한분이再發하야서, 生命까지일허버리는일까지往往잇다.

一家의礎石인 사람이업서지면, 家族은 暗憺하게되야서財産은散財되고 遺族은 悲慘히도彷徨하게되오. 그리하야 한번中風에걸린분은, 普通身體와는 달은것을自覺하야서, 再發치안흘治療法이重要하오. 그療養法을하는데도 中風에對한注意看護를으고 認識不足이되며, 히매고, 곱이고

多大한金 額을 使用하야 하야, 도리여 害되일까지잇서서도 無端히되고, 回復이안되는後悔하는일이잇소. 또日常食物은그 맛이아는바와가티成分이 들어서 가운대는 特種의性質을가지는것으로 中風患者에 好不好가잇서서 直時病狀에 關係됨으로 그選別法이肝要하오公益을爲하야모-든詳細를 여기말하고십흐나 遺憾이나紙面이有限하야希望하분의 特히仔細한것과 親切히直接送呈하겟소그內容說明書는

無料送呈=內容 四十歲頃부터 만흔動脈硬化症, 高血壓의原因으로일우아는 고, 또自己가獨自診察法을가르켜그豫防, 젊어지는法을實際有效的으로 指導하고 구나, 中風의實驗等을說하는 中風血統의人, 多血肥滿의中體質의人, 神經質人, 酒精을조와한분, 平素머리만히쓰는

분으로도中風에안걸리 安全 豫防法으로알이고 現在中風에걸여서잇는분을爲하야는中風에對하야알지안흐면 안되는重要한것을 一一히注意하야 飮食物의조흔것, 납븐것을區別하야 自宅에서도괴時間 손들덜게하야 只今까지 만흔同病者와조와하는治療法을 곳되게親切히引導하야等閑히할수업는有益한것이다.

希望하는분은明石市東戎町順神堂 本家에照會하시면 創製者加古恩兵衛氏는明石市에서 表彰한 奇特한人으로 特히中風患者의救濟에熱心으로 今日까지도多數의同病者로부터 深甚한感謝를밧고잇소한번겨정한 中風患者라도治療良法을어더내거되고幸福한活動에 몸이되야長生하여잇는분도 적지 안음으로 悲觀은損이오 早速히 葉書에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明記하야서兵庫縣明石市東戎町順神堂本家에 照會하시오.

幼兒熱에

大人의藥은禁物에 지나中毒이危險! 반드시「オイン」을 給與하시오

コドモの オ イ ン (오 인)

かぜねつ 12

主効 감기, 熱, 流行性感氣 肺炎, 痲疹 百日咳

小兒의 體質에 適應하야 絶對로 副作用이업고 少量으로服用하기쉽고 熱도잘내리고 小兒들의 危險을 防止하는 常備藥입니다

東京·大阪 丹平商會

新羅와建國 (一)

事學館筆記

蒼匡學人

新羅本紀에 依하면 漢宣帝五鳳元年(西紀前五七年)에 辰韓六部의 人이 朴赫居世를 推戴하야 王을삼고 國號를 徐伐(卽新羅의異稱)이라하엿다고하엿다 卽 漢宣帝五鳳元年을 新羅의 建國元年가티 꾸며 노핫는데 이것은 朴氏王國의 初年이라는것은 可하되 新羅의建國이 아닌데에서 작되엿다 [illegible]

왜그러냐하면 [illegible] 不可한것이다 [illegible] 新羅는 本래 辰韓이라하고 北史新羅傳에 新羅는 斯盧라고도 한다하엿스니 원래 新羅、斯盧는 同音異譯에 不外한것인데 三[illegible] 三國時에 [illegible] 新羅이잇스니 이것이 五鳳元年에서 [illegible] 以前에 잇섯든것을 [illegible]하게된다

그러면 新羅의 [illegible]은 어느때이엇든가 이것을 알자면 먼저 新羅가 卽 辰韓이든것을 알어야되겟다 어찌서 斯盧가 卽 辰韓인가하면 辰은 新과 同音이오 韓의 [illegible]이니 辰韓이라함은 新羅를 [illegible]으로볼수잇는까닭이라 [illegible] 辰은新[illegible]이라할者의 論에依하면 [illegible] 司徒 와 [illegible]이라하엿스니 [illegible]가

[illegible] 辰韓이 [illegible] 대개十二國이 [illegible]든것이라 新羅가 中國[illegible]가 되고 [illegible] 낡어지 十二國까지 [illegible] 辰韓이라[illegible]

그러므로 辰韓의 [illegible] 辰韓은 [illegible] 가소스로 말하되 [illegible] 亡人으로서 苦役을 避하야 韓에갓더니 馬韓이 東界를 割與하야 [illegible] 辰韓이라한다고하엿스니 그러면 [illegible] 十五六年때에 [illegible] 하고나서 [illegible] 十數年間 卽西紀前二一〇年乃至二二一年頃에 辰韓이 創立되엿다고하겟다

그러나 이말을그대로 [illegible]할것은못된다 왜그러냐하면 同[illegible]에 馬韓辰韓弁韓은 다 古의辰[illegible]

[illegible] 辰韓이 [illegible]이 [illegible]하야 [illegible] 辰韓의 [illegible] 그러므로 [illegible] 지라도 本來는 [illegible] 그러므로 [illegible] 辰韓이 [illegible]하든것이 [illegible] 時에 [illegible]에잇고 [illegible] 로[illegible]하게되고 馬韓은 [illegible] 氏民과 그本國과의 交通을 [illegible] 식히기爲하야 그管轄下에 잇는 東界의 辰韓地方에 安[illegible] 일이잇섯든것은 推測하기어렵지 안타 그러므로 [illegible]

[illegible] 一方[illegible]이 [illegible] 辰韓이 [illegible] 그러므로 [illegible] 지라 [illegible] 자[illegible] 三國志에 [illegible] 서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東界의 [illegible] 辰韓人으로하야 [illegible] 다는 三國志의 [illegible] 는 馬韓人이 자지하면서도 그것이 [illegible] 方官의 [illegible] 한번씩 [illegible] 안코면 [illegible] 니 그것은 [illegible]

一九•十月創作評(二)

「스토리」의屈曲과眞實感

安懷南

도 모밀꽃이 아름다웁다는것은 나도 어렷적부터 보아서 알지만 그것을說明하여불라고들면 아득하여진다。李孝石氏의「모밀꽃필무렵」이 이와 恰似한作用을 나에게 하고잇다。나제보는 모밀꼿과 밤에 月光아래에서 求景하는 모밀꽃은 하나이면서도 그 주는感觸이

…判…

異하것이매 나는 이 두가지의印象을 작구 調和하기때문에 困難을느끼게되는것이 아닌가한다。

「모밀꽃필무렵」은 어떠케보면 白晝의 그貧弱한모양을 想像케하고 어떠케보면 달빛아래에서 目睹하는것과 가튼 허연서리가 凝然하면서 그윽한 맛을 주는 作品인데 나는 그대낫의 연한 꼴을 생각하여보지아니치도업시 늘 그 허여로 그윽한記憶에 눌려저 잇서는것이다。

李孝石氏는 最近의「들」「산」「聖樹賦」等의 로맨티시즘 또는 새로운境地를 散步하여보려는 마음에서 暫間 다시 발길을 돌려 녯날의 林檎나무아래로 돌아오것갓다。그리고 그의 果樹園엽 附近에 바로 모밀밧이 부터잇는것이다。

장돌뱅이와 언제 그가 交際를 하엿든지 모르지만 그가「산」「들」을 허매이며 새로운것을 探求하다 中止하고 「蕎麥近傍」나 「오리온과林檎」時代의 樹園이나 모밀바력

…果…

안저서 장돌뱅이의 訪問을 밧는것은 果然 어느편이 더 新鮮한 料理를 文學의 食卓우에 선사하는 것이될가。생각해볼만한 問題이다。

林和甲氏의「春甫의得失」도 모티프에의 尖鋭的化粧術은 쏘지안핫스나 세거난 욕심을 그래로의 수수한맛으로 亦是 나를 誘惑하고 만 作品의 하나이다 李孝石氏의 것에서는 情緖에 醉하엿섯스나 이 作品에서는 돈百圓을 차질에서 拾得한 主人公의 微妙한 心理描寫와 진으면 진을사록 咀嚼하는 맛이생기는 말과 文章그것이 더욱읽는사람으로 하여금 반하게 하고 마는것이다。

이러한 作品이 眞者 우에서 말한 요만한것이의 表現과長點도 업섯다면 十圓쩌리 엽장을 어떠다가 小作權을 미끼로 몽랑배앗겨 버렷다는 아야기가제 아무리

…神…

奇하기로서니 그것은 한개의 드문事話에 굿치고 말것이지 가난한 農民의 生活과思想을 表現한만한 小說에는들으지못하엿슬것이다。

먼저 金裕貞氏의「貞操」는 筆者가 單純한讀物로까지 攻擊한것도 어머이라는 人物이 美人計劃에서 二百圓을 빼아섯다는 奇異한 스토리에만 作者가 着眼하고 거기에만 始終하엿스며 조곰도 살아잇는 氣分을 나타내지못한데 原因하엿슬것이다。

朴魯甲氏는 이것을 生活속에다 消化를시켜 그 奇異한것을 生活한 奇異에만 못치지안코 心理와 行動을 自然스럽게 마추어 살게하엿고 그러하엿기때문에 우리는 該作品이內包하고잇는모든것을 그대로 感興에까지 享受할수잇섯다고 밋는것이다。

金東里氏의「山祭」는「태평」이라는 이小說의 主人公과「바람쟁이」라는 人物 이두사람을 各各 本位로하야 따로따로의두갈래 이야기를쓴小說가티 생각되엇스며 또 양편다 무엇을

…期…

待하게 맨들고는내내 아무것도 보혀주지안흔것으로 나종신선함을 禁치못하게하엿다。筆致의 能熟함은 비단 能熟하엿슬 뿐만 아니라 小說의 全態的構成으로 보아 이作者가아니고는 구경할수업는 特別한技巧를 엿보게하엿다。그의「巫女圖」에서도 가튼 經驗에 사로잡혓섯스나「山祭」가 두개의 小說이 한테合치것갓고 終末이 시시하게되고만것은 어분의 力量으로 미루어보아그가 肖實를보여주지못햇다거나 叙述이不足하엿다고 認定하는것보다는「巫女圖」와가튼 이야기의奇異性이 豊足치못하엿기때문이 아닌가한다 萬一「태평」이의 無諾가 가지가지로더욱 慘酷하고 만한돈을「바람쟁이」는 決斷코「태평」이와 엇개를 나렵히 못하엿슬것이요 우리도 作者와 함께 울을보면 그의얼골을 形態學만치 「태평」이의 생각이 深刻하게 되엿섯슬것이다。

…前…

우에서 金裕貞氏의「貞操」와 의스토리의 屈曲과 後者의 리알리티를 의眞實感과에對하야 言及하엿거나와 近者 우리는 곳곳에서 가튼問題에부다치고 마는것이요 李孝石氏의「모밀꽃필무렵」과 朴魯甲氏의「春甫의得失」이 이런意味에서 成功한 作品이며 同時 文學上으로 좀더 根幹을 살필만한 考察을하여본다더라도 李孝石氏가 그의 果樹園에 안저서 장돌뱅이 뿐만아니라 其外 各階級의 間閱 人物과 生活을對面하는것으로서도 한水準의 正當한文學의 任務를 다할수잇는것이라 하겟거니와亦是그가「들」「산」의 探求를 繼續하는것이 더욱文學의 食卓을 山海의珍味로 가득하게하는 努力이될것이 아닌가한다。于先 우리에게 興味를 주는主題의性格 그리고 生活과 재미잇는 이야기 게다가 李箱氏의 心理와神經의活動을 생각한다면 奇態天外일른지몰으지만 오늘날의 가張發揚한 文章의 에스푸리는李孝石氏의장돌뱅이가 李箱氏의날개를 마고 여러곳으로 돌아다니는데 잇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風景」 加明普校 黃東淵 作 (學生美展特選)

아프로도그림은 더배우겟습니다

加明普校 黃東淵君 談

본래부터 그림은 퍽조와합니다。이번에도 선생님이 하나 내보라시기에 우연이 출품을 하엿든것이 특선이되엿다기에 처음에는 놀랏습니다 선생님이 작고만 그리라고하서서들틈이 그린것이 그러케되엇스니 모다 선생님 덕분이지 제야 멀엇읍니까? 아프로도 그림은 그리겟습니다。고등보통학교에나 드러가고하면 텃베워서 조흔그림을 그리겟습니다。유화를 그리겟느냐고요? 그것은 아직어렵고해서요 그저열심으로 배우겟습니다。

努力하는것이 귀특하지요

圖畫擔當先生 金昌漢氏談

황군이 특선된것은 가르기도한바입스니 명색이 지도를 하고잇다는저로서는 한편으로 부끄럽기도합니다。이제 전람회장에가서 다른아동들의 작품과 비교도해서 보겟습니마는 대체황군의 특증이라고할까 제일귀특한점은 작품을 만드는데잇서서 매우 노력을 하는것입니다。취재나 표현에 잇서서 조금도 방심하는것이 보이지안코 비상히 열중하고 노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아이는 다른성적도 매우양호합니다。이러한 소질과정도을 가진아이가 아프로 순조롭게발전을 한다면 반드시장래가잇스리라고 밋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들도 특별히 관심을가지고 그천분을살리도록 노력을하겟지마는 귀사로서도 이러한긔회를 만드러주서서 순진한동심에다가 자긔의 천질을밋게하여주엇다는것은 배우의의잇는일인동시에 우리로서는 무한히 감사하는바입니다。

東洋과西洋의對照

묵은問題의새로운吟味 (8)

趙憲泳

醫學上으로본東洋과西洋

醫學上으로도 東洋과西洋은 判然한 差異가 잇스니 東洋醫學은 綜合的治療를 主로하고 西洋醫學은 局所的處置를 主로하며 東醫治療는 自然的이고 西醫治療는 人工的이며 東洋醫學은 內科的으로 誘導療法을 施하고 西洋醫學은 外科的으로 見血療法을施한다。

漢醫가 쓰는藥物은 거의 全部가 植物性이요 洋醫는 鑛物性藥物을 偏用한다。書藥을 만히먹고 活動을 過히해서 만히생기는 西洋사람의病에는「實證」이 만흐니 攻瀉의 性質을가진 鑛物性藥物이 適應性을 가지고잇스나 菜食을 主로하는 東洋사람에게는 營養이 不足하고元氣가 虛弱해서 나는病 卽「虛症」이 만키때문에 補益을 主로하는 植物性漢藥이 더適應性을 가지고잇다。

여긔에 興味잇는일이 하나잇스니 菜食하는사람은 泄瀉를第一걱정하고 肉食하는사람은 便秘를 第一겁낸다。洋醫學이야기를 들어보지못한 村落의 사람들은 大便을 一週日以上을 못보아도 뒤가 어떠나고몰으면서 슴지안코 뒤는 아모렁지도다고明快히 [illegible]한다。이것은 곳 [illegible] 나 情實이아니라는 禁이오 同時에 便秘에는 [illegible]을 느끼지안는까닭이다 若斷에서 所謂「遲素養散」을 健康의 證左로 보는것은 無該하다고 우승할일이아니오 原始社會에서 울어난말이다。

그러나 肉食家는 이와 正反對로 便秘가第一若痛이오 지라리 泄瀉를 歡迎하는 傾向이잇다

東洋醫學은 [illegible] 그 [illegible] 西洋醫學은 [illegible] 學術的 出發點이 다른기때문이다。前者가 哲學的이오 生命現象學的인데 對하야 後者는 自然科學的이오 形態學的이오 細菌學的이다。

失(鼎)이 단대에 우으로 물을부어서 시킬수도잇고 밋트로 불을꺼서 식게할수도잇다。猛盜가 왓슬때 帶銃으로 쏘아죽이는 方法도잇고 돈을주어 보내는 方法도잇다。前者를 西洋的方法이라면 後者는 東洋的方法으로 볼수잇다。이두方法이 全然 背馳되는것 갓지마는 窮極의目的은 同一한것이다。그方法의 어느것을 擇하는것은 오직 그때의 形便과 그사람의 性格에 依하야 決定되는것이다。그러므로 젊은사람 操急한사람은 洋醫에게로 만히 가고 늙은사람 沈着한사람은 漢藥을 만히먹으며 急한病은 病兵으로 실고가고 오래病은 漢醫에게 보혈하고한다

xxxxxxxx

中國에잇서서

數學의發達 ③

金一鎭

xxxxxxxx

九章算術中 우리가第一奇異하게 生覺하는것은 其中의 一問題가 印度의學者「푸라마그푸라」가 著作한 書中에도 이를發見할수잇는것이다「푸라마그푸라」는 九章算術에比하야 數百年後에 出生하엿슴으로 或은 支那로부터 印度에傳播됨이 아닌가生覺되다 兩國學術이 서로 影響을 비치고잇슴을 이로서도想像할수가잇다。

九章算術이 佛敎東來(漢明帝永平八年西紀六五年)보다 압섯이 實로 一、二百年이니 이事實은 數學史上은 勿論이요 考古學上에도 重要한 意義를 갓고 잇슴을 어저서는 아니된다

九章算術、周髀算經을 비롯하야 古代의 算術書로서는 孫子算經 五曹算經 日經算術 夏侯陽算術 張邱建算經等 現今까지 傳하여져잇다 此等數部의 書籍은 當時 編纂된 全部가 아님은 勿論이며 또한 이數部의 書籍으로 當時의 數學의 全般을 推察할수잇는 代表的書이라 解할수는업스나 이書籍外에 當時를 追懷할 道理가 업는것이다。其他書籍으로는 社忠算術, 許商算術 董泉의 三等數等은 지금에는 散滅하야 차질길이업다。以上의 諸書는 漢代 或은 그後에 著述된것이나 九章算術에比하야 顯著한 進步를 하엿다고는 할수업다。孫子, 張邱建算經에는 分數에 關한問題가만타。孫子算經中에는 唐의僧侶一行의 이르러 순물것처 宋末秦九韶에 이르러 大衍의 華麗한 方法이되엿스나 問題가 비로소 揭載되엇스나 이問題는 實로 不定解析에 關한것이다。이와가튼 問題는 張邱建算經及 漢의 徐岳이 著作한 數術記遺의 新經의 註에도 發見할수가잇다。

孫子算經의 著者를 或人은 有名한 兵法家 孫武의 作이라解하나 이것은 何等證據가잇슬뿐더러 決定 漢代以前의 作이아니다。

其他 諸書中 最古한것에「五曹算經」이잇스나 이書의 術理는 그다지 微妙하지못하며 또한 何代의 作인지도 未詳이다 夏侯陽 張邱建及 五經算術의 作者甄鸞等은 모다 紀元六世紀때사람이다。

以外에 西歷三世紀頃에 著作되여 現存한 古書가 또한 一部잇스니 魏의 劉徽가 지은『海島算術』이이것이다 直角三角形을 使用하고 比例의理를 여러번 適用하야 測量術을 行한것으로 代數的考案을 만히쓰고잇다。

唐初 僧侶一行이 出生하기前에 吾人이 이저서는아니될 一大學者가잇섯스니 王孝通이 이사람이다。王氏는 武德年間(六一八年부터 六二六年頃까지)唐朝의 曆官이엇스나 그傳記는알길이업다 그러나 王氏가 著作한『緝古算經』은 當時의 天子의 上覽을맛고 唐朝科擧의 一科目으로 使用되엿다 그書籍은 지금 現存함으로 內容을알피건대 當時에 임이 三次方程式의 近似解法이 成立되여 잇섯음을알수가잇다

新刊紹介

▲朝鮮佛敎總報 第七十二號 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illegible] 振替京城[illegible]〇三番 定價一部六錢

▲文章 第二號 發行所 京城府[illegible]町五三一 [illegible]出版部 振替京城七六〇番

▲女性朝鮮 十月號 發行所 東京市[illegible]町二ノ五ノ五 [illegible] 振替東京一二〇四九四番 定價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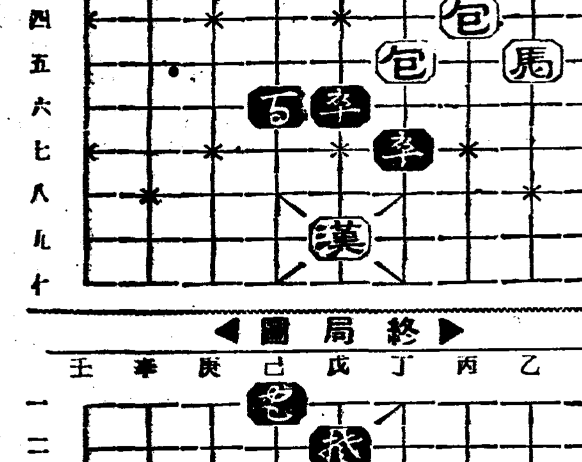
▲新興佛敎新報 第一九五號 發行所 東京市[illegible]司ケ谷町一ノ六〇 佛旅社 振替東京五三七〇一番 定價一部五錢

▲湖南評論 十月號 發行所 京城府明倫町四丁目二〇六 湖南評論社京城支社 定價二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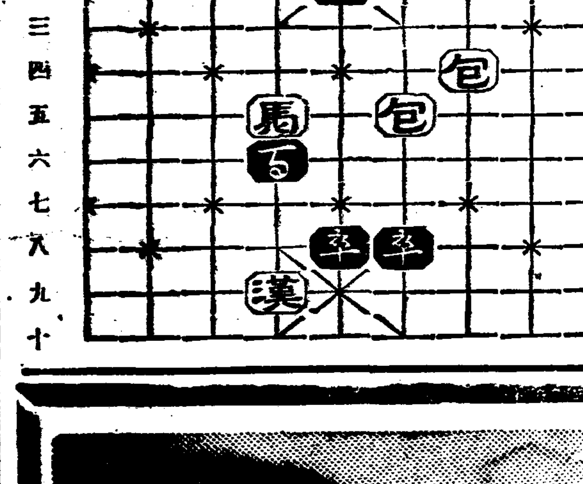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八十)

先手 全于石 漢 李在鳳

◀百七十手圖▶



◀終局圖▶



戊六包─戊七 丁五馬─己四
乙五馬─丁六 丁四包─丁六
戊七包─戊六 丁八包─丁八
戊九漢─己九
丁三包─己二呼將
(楚勝)

ホルモンは肌の滋養劑

호르몬은 살결의 滋養劑

얼골이나손이날마다고와지는

ホルモンの効果에 눈부신나다!

「ホルモン」一字を 見[illegible] ……이것은 [illegible] 지금까지 ホルモン을 [illegible] 「[illegible]」고ホルモン [illegible] 거기에는クラブ美身クリーム을 [illegible] 皮膚의 [illegible] ホルモン [illegible]

잔주름·주름·弛緩에는……

이部分에 生起는주름이나弛緩은 クラブ乳液 또는 クラブ美身クリーム을 [illegible] 綜合ホルモン이皮膚로부터 吸收되어 [illegible] クラブ乳液은 다시손에 [illegible]

죽은깨 여드름에는……

ホルモン化粧水의 乳液과美白 クラブ美身クリーム(强度ホルモ配合·一圓五〇錢)은 죽은깨, 여드름거미에도 現著한效果가잇습니다。專賣特許의 綜合ホルモン과 [illegible]配合의 綜合으로 죽은깨나여드름가튼것을 美理的으로 分解解消식혀희고아름다운살결을 만듭니다。

藥用クラブ 美身크림 一圓五〇전

구라부美身크림 二三錢三〇전三三전四〇전八〇전

구라부乳液 五〇전 八〇전

ホルモン 化粧水

クラブ乳液

B─267

十四日 (水曜)

◇午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家庭講座 〃에레르이야기〃 中央保育 沈 享 弼
◇同七時三〇分 講演 三國時代의音樂과樂器 金 日 坤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竹枝巴陵
二、唱劇調 春香歌中御使出道하는데 鼓手 丁 貞 烈 丁 元 燮
◇同八時三〇分 三重奏、三重奏曲 C長調 作品十二 第一樂章 東알레그로 第二樂章 안단테 第三樂章알레그레토
K・A・K三重奏
피아노 金 駿 泳
바이올린 安 聖 教
첼로 金 泰 淵
◇同九時 映畫이야기 〃이처지지안는노래〃 李 丞 興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合唱과獨唱 TOAK唱歌隊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前田 米藏
◇同八時(東) 俱樂部巡禮(三)
◇同八時二〇分 라듸오・오페레드 榎本 健外
◇同八時五五(東) 浪花節 雷甲高虎丸

十五日 (木曜)

◇午後六時 童話『天國가는편지』 金 泰 午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 〃가을과하이킹〃 梨專教授 金 甫 銘
◇同七時三〇 講演 教育과知識偏重 京師教諭 李 寅 基
◇同八時 노들강변外 一、노들강변 二、도라지타령 三、밀양아리랑 四、青春歌 五、풍타령 六、방아타령 玄 山 玉 細笛 高 載 德 短簫 崔 壽 成
◇同八時三〇分 古談 〃抑持狼狽〃 張 志 浩

第一放送

◇午後六時三〇分(東) 基礎佛語講座(十一) 丸山順太郎
◇同一〇時三〇分(東) 어머니時間 三橋 逢吉
◇午後〇時五分(東) 合唱
◇同一時 常識講座 吉池 四郎

〃科學者의길〃 윌리암・듸타-레監督 위-너作品

◇同七時三〇分 譚講『鐵道의使命』 鐵道大臣 前田 米藏 通譯官 西村眞太郎
◇同八時 라디오드라마『水仙花』一場
—配役—
李南哲……(騎兵參尉)……吉七永
醫師……李元瑞
看護婦……白庚姬
貞順母……全純英
金廣植……(貞順의父)……龍波
歌謠曲 市丸 三味線才香
◇同九時 時事解說

★曆★

十月十五日(木) 建戌戌九月大(初一日) 庚午・土・角・成
●祭祀移徙裁衣動土上梁卯時開市納財安葬에宜함
●霜降二十三日(初九日)
●立冬七日(舊二十四日)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同六時 實況中繼 DK오케스트라 本多 能成
◇同七時三〇分 講演 小川 鄕
◇同八時(新) 俱樂部巡禮(四)
◇同八時二〇分(東) 歌謠 水藤 錦穰
◇同八時三七分(東大) 東西스라인파레드

十六日 (金曜)

◇午後六時 라듸오風景 一景
配役
慶姬……李玉姬
仁淑……禹貞淑……吾順
羅今子……吾順어머니……禹聖萬
英子어머니……劉福香
其外水防團員
京城放送兒童劇研究會
指揮 南 雲
伴奏 劉 永 愛
效果 金 倩 編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秋夜와讀書 培花女高 金允經

貞順……(女學生)……李香子
南哲兄……金顯昇
杏花……(妓生)……卜惠淑
李承首……(貞順의父)……金夏鎭
指揮 放送劇新人會
效果 李 完 錫 金海鎭
◇同八時三〇分 準山歌外 一、유산가 二、제비가 三、달거리 四、선유가 金明 李紅淑
◇同九時 歌詞 一、길군악 二、黃鶴詞 大笒 金一永 杖鼓 金竹中 崔美香 金花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基礎英語講座 榛谷 榮
◇同一〇時三〇分(東) 家庭教育講座 杉田 直樹
◇午後〇時五分 箏曲 阿部伊太郎
◇同二時(東) 家庭講座 大平 得三
◇同六時(大) 連續漫談調
◇同七時三〇分(東) 俱樂部巡禮
◇同七時四二分(東) 尺八 長唄 綿富 嘉豐
◇同七時五五分(東)
◇同八時一五分(東) 連續講談 大島 伯鶴
◇同八時四〇分(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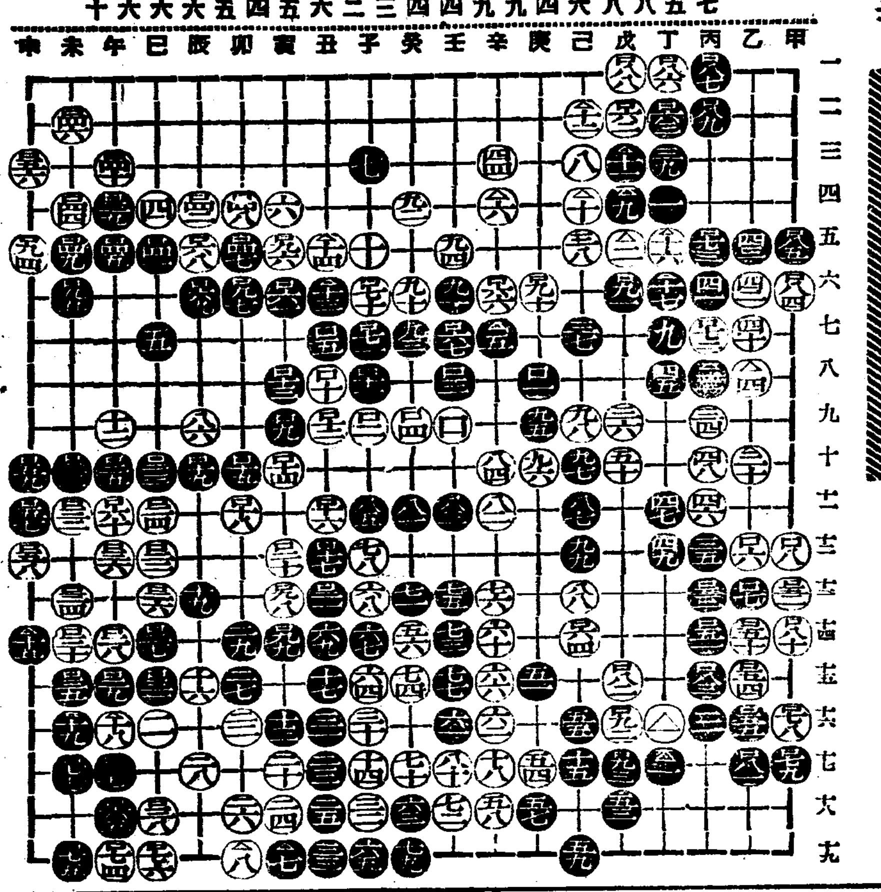
社本主催

圍碁對局譜

=12=

白 蔡 極 文
黑先 丁 奎 春

●二〇一 丁의十七
○二〇二 戊의五
●二〇三 丙의八
○二〇四 乙의八
●二〇五 辛의六
○二〇六 辛의四
●二〇七 寅의十九
○二〇八 卯의十九
●二〇九 戌의四
○二一〇 己의四
●二一一 戌의三
○二一二 己의二
●二一三 丑의六
○二一四 丑의五
●二一五 申의十四
○二一六 丁의五
●二一七 丁의六
○二一八 午의十六
●二一九 未의十六
○二二〇 乙의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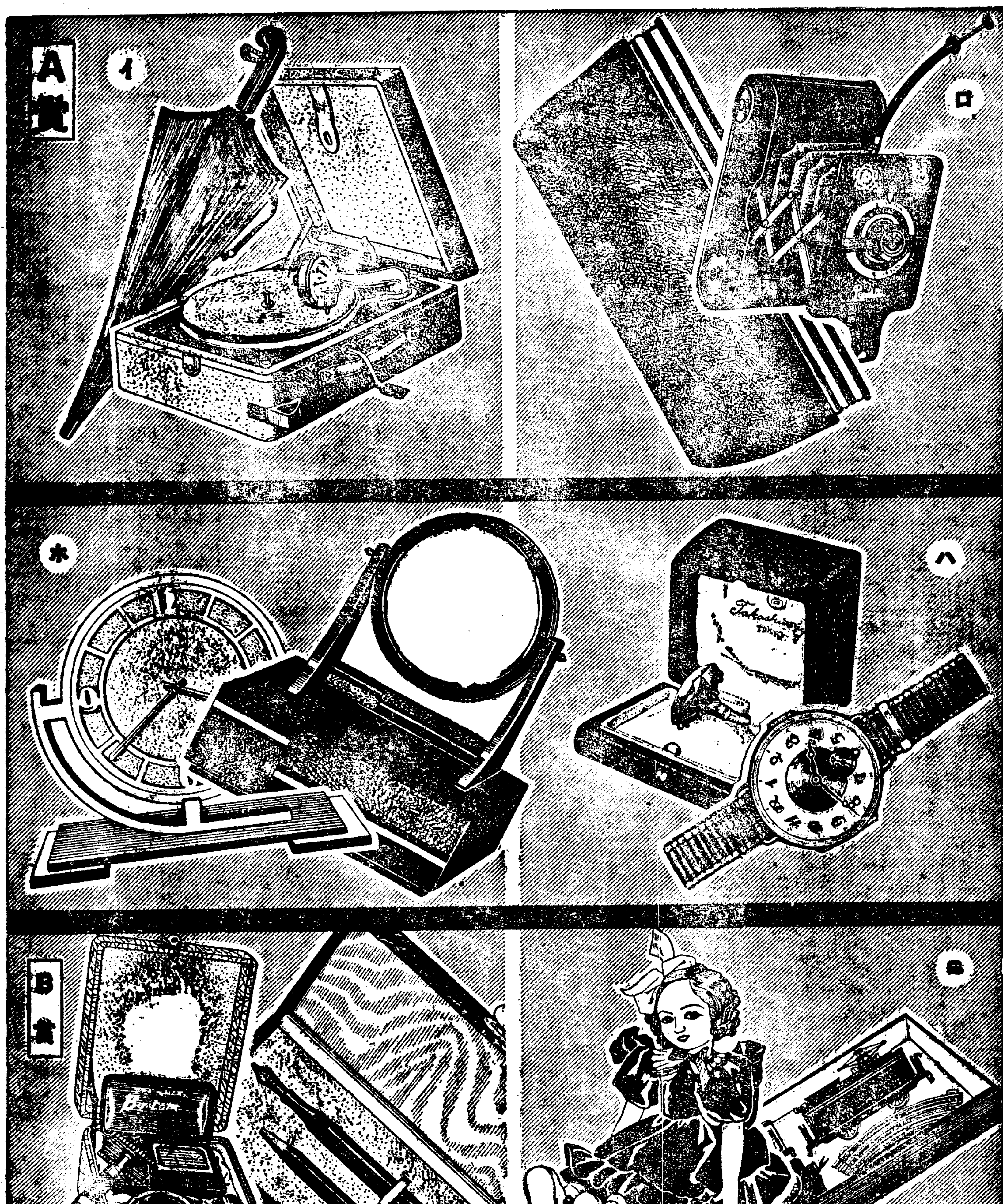


觀戰者評

黑白雙方에 全局變轉가 別無難解하고 亦無指摘誤評하니 觀戰手拱手라 計其戶三目不及은 惜敗하노라

白 蔡極文 白五十二目
黑 丁奎春 黑四十九目
白三目勝

大賞品が二つ一緒に当る
アベック・サービス



優秀品은맛납니다!

ライオン齒磨는 겨우三十秒使用함뿐으로서 口中의微生物을一掃하는무서운淸掃力을有함니다 이齒磨로어릴때부터자기前에어물닥그면虫齒豫防은安全!

ライオン齒磨

健康과幸運을
同時에!

能書二枚와外函二個를 一組로하야應募하시요

製品貳個以上お買上御應募の方へ

ライオン齒磨 (大型、中型)
ライオン齒刷子 (一號、二號、三號) 어느것이든지
能書二枚와外函二個를一組로하야
(一) 希望하시는賞
(二) 住所와氏名
(三) 朔 鮮 日 報 를外函에써서보내주시요
能書는齒封二枚로能書一枚와外函一個로代用
能書만이면齒封四枚를一組로하야齒封오兼書만한조히에各자붓치여一組마다 齒封이면十五瓦마다 郵便切手를貼付하야左記로送附하시요
(買入하신販賣店에서도받습니다)

御注意 昭和十一年十月卅一日. 規定外는無效

東京市本所區うまや橋
又は大阪市東區博勞町三丁目
ライオン齒磨本舗
アベック・サービス係

大賞品

A賞 壹千名
(イ) ポータブル蓄音器と婦人持洋傘(晴雨兼用)
(ロ) 寫眞機とハンド・バッグ
(ハ) 寶石入指環とクローム側腕時計
(ニ) 電氣機關車とお人形
(ホ) 美術置時計と姫鏡臺
(以上各二百名宛)

B賞 貳千名様
萬年筆とシャープ・ペンシル
剃刀セット

C賞 五千名様
アルバムと紙切ナイフ

D賞 壹萬名様
ライオン徳用石鹸タオル

賞品은모다두가지가一組(야벡)입니다

146—11.9

大衆的人氣白熱!
今絶好のお買時!

もれなく粗品呈上
尚ほ抽籤で上記の賞品贈呈

豐獲에 또 鰮價高로 咸南漁村大活況

九、十兩日間漁獲高만 十萬桶

昨年度漁獲高에 接近

【咸興】수만어민의사활을 좌우하는 함남정어리(鰮)는 초어(初漁)과에 극흉을 뵈우다가 구월중순부터 점점활기를띠여 온가고(鰮價高)와함께 겨우수비를계되엿는데 지난구일부터는 풍랑(風浪)도 별로업는 조흔날세에 풍획을이루워 삼만구천통(桶)일적평균삼백통 십일에는 륙만오천통으로 한척평균사백오십통의 다수에달하다 십일일까지의 총어획고는 륙십칠만통으로서 아직도작년동기에비하야서는이십팔만오천통가량은 부족되나 온가(鰮價)의 약배졸등으로 어촌은 근래에보기드므는성황을정한 비치며돌고잇다 한다

本社支局後援 救濟演奏素劇 川內里民赤誠

【高原】금번삼남수해는 의외에 비절참절한 분위기를 넘고잇다 항은 본보지상을통하야 루차보도되엇거니와 이제함남문천군천내리(咸南文川郡川內里)에서는재지동포의 참상을흑구제코저 여러가지로 방법을 강구중이든바오는십팔일밤에는 천내리유지 제씨들의발긔로 당지경찰관 주재소후원에서 연주회와및 소인극(素人劇)을 열터이라는데 일쪽이 천내리에서 보지못하든 모임으로서 이밤에는 밤듯이이채를나타나게 되리라는바 일반은 수재 동정극의밤 그날저녁을잇지마시고 풍부한 성원이잇기를 바란다고한다

慶州讀書會事件 控訴公判을開廷

被告들은모다結社事實을否認

十三日大邱覆審에서

【大邱】경주독서회(慶州讀書會)사건에관련된 피고 리칠성(李七星)외 여덜명은 소화구년칠월하순경에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의 죄명으로 경주서에 검거되고소되여 일심에서 최하륙개월로부터 최고삼년의 징역의 판결을밧고 불복하고 공소하엿든바 공소공판이 십삼일오후세시부터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제삼호법정에서 율산(栗山)재판장주심과 강산(江山)검사관여미테 개정하엿다。

변호사는 손치은(孫致殷)리창희(李昌禧)율산(栗山) 장야일랑(長野一郎)씨등이 렬석하엿고방청석은 피고들의 친척지우로만원을 이루엇다。

재판장은 피고리칠성(李七星)(二三)리치용(李致瑢)(二三) 최수봉(崔秀峰)(二三)손동창(孫東昌)(二七)손봉호(孫鳳鎬)(二七)손망익(孫望翼)(二七)최명표(崔明杓)(二七)김효줄(金孝出)김영만(金永萬)(二七)등에 대하야 사실심문이 잇섯는데 피고들은 사회주의학설(社會主義學說)에 대한 리론마는찬성하엿스나 실천을 목적한연구단체인 독서회등을 조직한사실은 전연히업다고 부인하엿스며 그러고 피고간에서도 서로한번도 대면하지못한 부지초면이라고 력설하엿다

오후여섯시에 심문이끗나자폐정하엿스며 속행공판은 이달이십이일이라한다。

青年會承認取消로 監理教會에內訌

形勢極히惡化될듯

【公州】충남공주읍 상반정(公州邑常盤町)에 례배당(禮拜堂)을둔 공주감리교회에서 교회직원회과 교회청년회와 분규를 거듭하여 악화되는형세를일반은 주목하게되엿다한다 그분규의내용을 탐지한바에의하면전긔 교회청년회는 수년전 교회에서세례를 밧지못한 청년을교라로지도하야 교양을 목적으로조직하고교회직원회의 승인을밧고이래교회사업에 일층활약하든바 지난구월순경에 지방청년수양회개최당시에 교회규정에업는 교회청년회가잇느냐는 질문을밧게되야 전긔직원회에서는 엡웟청년회로 변경하라고 권고를하나 전긔청년회측에서는 회원의 자격문제로 회를 변경치못하겟다함으로 직원회에서는 승인한것을 취소하고 례배당내에서 집회일체를 금지한것으로 부터시작하야 청년회를이왕에승인하고 별다른리유도업시승인한것을 취소하고 집회일체를금지하며 그타여러가지 폭언을하엿다고 전긔청년회에서는 지난토일밤에 향철도사집에 회합하야 대책을협의하고 직원회의부정당처사와 교회내부정사실을적발하야 사회에성토한다고 형세는 가장악화하여젓다한다

◇…金牧師談

전긔직원중에 김목사는 말하되 전긔청년회 승인취소는 지방청년회에서 교회규정에업는 청년회를 승인한것을 공격하야 규정에업는 것이기에 취소한것이며 그타여러가지비검한폭언으로다는말은 전부부당한 무근지석이며 교회법치로 당연히 제지할것입이다 그러함으로나에여 교회체면을 손상케하는것으로 청년회를 용인할수업다 운운

本社經由救濟品 米、麥、衣類二千點

榮州災民에第四次配給

【榮州】경북영주군내리재민 오천여명은 날이 갈사록 치위의 위협으로 더욱견디지못하야 한편으로 유리자가 나는등 점점생로가 막연하든바 본사로부터 또다시 백미(白米)보리쌀(麥)의류(衣類) 약품(藥品)등 이천여점이 왓스므로 본사영주지국에서는 지국원총동원으로 실업면재지 리재자오천명에게 각각적당하게 배급하야 우차(牛車)와 지게로 각면에 운반하야각 이재자들에게 배급하게되여 우선영주면리재자 사백오십오명에게 지난십일오전십시에 본사영주지국광장에서 배급하엿는바 리재자들은 다만 묵연함분이엿다

面別	衣類數	食糧數	配給日割
榮州	二三六點		十月十日
伊山	一一五	白米一叺	十月九日
文殊	二〇五	精麥一叺	十月十五日
平恩	三六三		十月十四日
長壽	一五三		十月十二日
安定	一〇三		十月十三日
鳳峴	八三		十月十七日
豐基	二五		十月十八日
順興	三七		十月廿日
丹山	一六〇		
浮石	一〇〇		

開城府民飲酒量

一人當一年間五斗酒

負税額은一人當五圓

【開城】개성세무서관내의 금년구월부터 래년팔월까지에 주조예상석수는 탁주、약주、소주를합하야 이만팔천일백이십륙석으로 그세액이 이십팔만오천륙백륙원인데 전년도에비교하면 석수사십팔석의 증가이다 그런데 전긔총석수를 개성오만륙천인구에 분할하면 한사람이 일년에다섯말의 두주(斗酒)를먹는세음이며 총세액은 일인당 오원십전식에 해당하니 실로경탄할일이다 그의내역은 다음과갓다

	今年度定石數	昨年度實績
濁酒	二一、三六五石	二一、三四三石
税額	三六、七二一圓	三六、五六七圓
藥酒	二、一三三石	二、〇九九石
税額	二七、四四〇圓	二七、二七三圓
燒酒	一、四六六石	一、四八五石
税額	二二九、四五五圓	二二六、〇三四圓

北朝鮮個人庭球 盛況裡에終幕

【咸興】함흥긔독청년회(咸興基督青年會)주최와 본보함흥지국후원의 제사회 북조선개인 정구대회(北朝鮮個人庭球大會)는 십일일오후한시부터 동일은행지점 코—트에서 열렷다 참가선수는 이십조이상으로 정구대회는 근래의처음 성황을일우엇스며 접전육거듭한끄테 영예의우승은 함흥리동윤(李東允)라태빈(羅台彬)조로 돌아갓다 전적은 다음과갓다

準決勝

(韓基洪 朴俊基)四—一(李見 島)

(李東允 羅台彬)四—三(宮奥 崎田)

決勝

(李東允 羅台彬)四—二(韓基洪 朴俊基)

朝鮮移民耕作地 東邊道管內로指定

明春耕作期前大量移民實施

關係當局積極的斡旋

【安東縣】만선척식공사(滿鮮拓殖公司)에서는 조선농민을 만주에 대량이민코저 수전농작지를 만주각령사관조선인에게 의뢰하야 조선인민회장으로하여금 수전에 적당한지방을 조사중이든바 최근에 조사가끗낫다는데 조선과 련접된 동변도(東邊道)내에잇는 관전현(寬甸縣)에이개소 즙안현(輯安縣)에이개소 림강현(臨江縣)에이개소 장백현(長白縣)에 육개소로 지정되엿다는바 전긔 지정지는 경작지면적이 광활하고 수운이편리하야 수전농사에 적당함으로 안동령사관에서는 만선척식공사에보고하여 기술원이 조사단시한후에 집단부락의형식으로 대량이민을 계획중이라는데 명년봄부터 농사를하도록적극적활동중이라하니 이로부터광활한 동변도일대의 황무지는조선농민의손으로 개척되여 대량의이민을 수용하리라한다

通度寺學生의 水害災民同情

【梁山】량산군하북면에잇는 조선불교대본산(朝鮮佛教大本山)인 통도사(通度寺)의 학생칠십오명은 지난번의 대풍수해이재민을 위하야 최하오전이상 최고구십전의 푼푼금전을 연출하야 금월초에 본사량산지국에 긔탁하야왓슴으로 본지국에서는 곳재해지인 원동(院洞)의 참해자에게 배급하엿다한다

土兵通謀者衝火로 民家二十戸燒失

全洞民銃殺放火의脅迫으로

盜滿洞移住同胞避難

【咸興】괴동준비로 최후적필사활동을 계속하고잇는 토병(土兵)단 공산군들의 등쌀에 쫏겨다니는 이주동포의 참상은 루보한바어니와 십삼일 경찰부에 들어온 정보를 보면은 지난십이일오후한시쯤 치안대와 경찰대가 토병과통모(通謀)하는 용의자를 수사하려고 장백현도만동(盜滿洞)에 출동하얏든바 그촌에숨기고잇든 통모자(通謀者)수명이 종적을 감추려고 도망하면서 그만불을 질럿서 민가삼십호가 전부타버렷다 그러하야 거기에서 살고잇든 동포들은 전부이두강(二頭崗)에 수용하얏다는대 농작물도 삼분이박게는 더수확못하고 나머지삼분의일은 그냥버려두엇다고한다

그리고 이십일도구(二十一道溝)각구장들에게는 지난 십이일 조선××군 제이군 제륙사칠단사령장(朝鮮××軍第二軍第六師七團四連長)으로부터 전번에요구한 물자(物資)를 그한까지 보내지안는까닭으로 근일중 각촌을 습격하야 주민전부를 총살(銃殺)하는동시 모조리태워버리겟다고하는 무시무시한 협박장을 보내여 왓는대 이로인하야 전촌락은 갑작이 동요하기시작하야 길성촌(吉城村)에잇는 동포십호 칠십이명은 벌서 가림주재소(佳林駐在所)대안촌에 피난하야 왓스며 다른각촌도 피난으로 소연한가운데잇다한다

수업는 곤난을 당하야 오든동마즘 도당국으로부터 칠천원의 보조와 함남형무당칠천원으로일만사천일백원에 삼택(三宅)청부업자에게 청부케하야 현하공사를 진행중인데 래년삼월이십오일까지 완전한준공을 보게되여 래년도입학기에는 다소의 융화를 보리라한다

◇寫眞…榮州邑災民에게救濟品配給光景。

國境野球大會 江界軍이優勝

【江界】경성일보강계지국주최제사회국경야구대회(國境野球大會)는 일류팀참가로 지난십일 십일일량일간 강계역(江界驛)광장에서 개최하엿든데 강계영림서(江界營林署)군이 우승하엿다

咸興에食刀强盜

深夜에商店에侵入脅迫하다가

現場에서警察이逮捕

【咸興】십일일오전두시반경 함흥부대화정이정목(大和町二丁目) 식료잡화상김두진(金斗鎭)의 상점에 복면하고 식도(食刀)를든 강도한사람이 나타나서 곤히자고잇는 주인을 깨워 이르킨후에 주인의 목에다가 칼을대이고서 나는만주(滿洲)에서온 사람인대 돈을잇는대로 내라고위협을하얏다。

이때 불시의변에 겁을먹으주인이 자긔도 몰으게강도!라고 소리를 질은것이 때마츰 그밧갓도로를 것고잇든 통행인들의 귀에 들어가서 그통행인들이즉시 경찰서에 전화를하야서 비상소집 출동한 사법계형사대한테범 인은 그현장에서 체포되얏다

취조한바 그는 본적을평남평원군 룡호면(平南平原郡 龍湖面)에두고 정평군주이면 룡상리(定平郡朱伊面龍上里)에와서로동하고잇는 전관식(全寬植)(三二)으로서 여죄도 잇지안흔가하야 계속 취조중이라한다

普校一年生橫厄

【咸興】지난십일오후세시쯤 함흥부서정(西町)록판(鹿坂)제재소압 지룡길에서 함흥부흥운정륙백륙십사번지 장응갑(張應甲)이가 우차(牛車)에실고온 재목을 불이우다가 그만 그길로지나가는 어린아이를치어 즉사케하얏다 피해소년은 함흥부일출정이십오번지(日出町)황치선(黃致善)의장남 현재함흥제일보통학교 일학년에 다니고잇는규필(珪必)(一〇)이라고하는데 그소년은 그날 공설운동장(公設運動場)에가서 자전차경긔를 구경하고 돌아오든길에 이와가튼횡액을당하얏다

雲興簡易學校 二十四日에開校

【龜城】귀성군 로동면운흥간이학교(龜城郡蘆洞面雲興簡易學校)는 오월부로 인가되엿슴으로 그동안개교준비도 순조로진행되여 래이십사일에 가교사에서 설대한 개교식을 거행한다한다

巨額의救濟金喜捨

災民과作人救濟

金剛山乾鳳寺의美擧

【高城】금강산건봉사에서는 저간의 풍수해에 참상을 당하고 비절참절한 목불인견의 생활을하고잇는 고성군내의 리재자며 자긔들의 소작인중 특히만흔피해를본 이들을 조사하여 현금팔백칠십여원을 희사하여왓슴으로 일반은 충송이자자 하다한다

弓山體育會組織

【龍岡】약진하는조선의스포—츠는 전도방방곡곡에 퍼지엇다 평남룡강군해운면궁산리(龍岡郡海雲面弓山里)에서는 동리유지청년들의발긔로 지난십일오후팔시부터 본리명덕학원(明德學院)강당에서 청년사십여명이 회합하야 당지학교선생강순겸(姜順謙)씨의사회하에 체육회가 창립되엿는데 압호로일반의긔대가만다하며여원과부서는다음과갓다한다

會長姜順謙 副會長金思濟 總務朴貞鎬 會計鄭義玄 書記[illegible] [illegible]部長[illegible] 蹴球部長金鳳德 同部員金思翊外一人 籠球部長金鳳梧 同部員鄭健俊外一人 庭球部長李憧禹 同部員金思泳外一人 野球部長鄭範柱 同部員劉仁昌外一人 事察韓錫萬 顧問裵致熙 郭奎玄

居昌公立普校 一部改築着手

【居昌】거창군거창공보교는지방발전과 향학열이 날노 노파짐에따라 다년간 교사협애로인하야 년년히 입학난으로 말할

元山은"가을"도봄 때아닌梨花滿發

【元山】신량이 교허에 들어 락엽이 우수수 떠러지는 가을철요지음에 배꼿이 피엿다는가을답지안흔 신긔한소식— 부내해안통 대촌겸차랑(大村謙次郎)씨집 후원에잇는 배나무는 요지음 칠팔일간계속한 따뜻한날세에 때아닌 탈선적조자를 맛추어 하얀꼿송이가 활착피어 청정한가을하날에 피육적미소를 보내고잇서서 일반으로하여곰 신긔한감을 금치못하게한다고한다

救濟金品遝至

天道教員赤誠

期日經過不拘

【咸興】남조선수해구제금품은마감한이후에도 련일답지하고잇는대 십삼일에는 천도교함흥종리원교인일동이 거금하야 현금이십구원십전과 의류일점 또 동천도교내성단(內誠團)함흥부단원일동이 현금일원륙십전 의류칠십칠점 함흥군당부칠십전 의류칠십무점을 본보함흥지국에 긔탁하야왓다

地方人事

▲張大鉉氏(本報永同支局長)去十二日午後八時 永同面會洞里自宅에서 遭外艱

▲林英茂氏(前群山檢事分局檢事)今般大邱檢事局轉勤人事次 群山支局來訪

▲安藤猛氏(元山署高等係主任)赴任人事次本社元山支局來訪

▲上田直彦氏(慶尙合同銀行常務取締役)安東支店業務視察次來安 十三日午後七時 料亭三日月에서 地方有志招待

木浦 全朝鮮男女名唱大會

▲時日 十月二十三日부터一週日間

▲場所 木浦驛前假設劇場

▲出演者 京城、大邱、全州、群山、光州、木浦等一流名唱網羅

◇主催 朝鮮日報木浦支局、湖南評論社

訂正 昭和十一年十月十四日付夕刊三面德川地方紹介版祝賀廣告中開城醫院은該醫院의誤植이요徐梧錫은該醫院의院長가티되엿스나事實과相反하므로玆以訂正함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軍手

이은자리업는軍手의製造家募集

從來の軍手 カガリアリ / ツギメナシ軍手 カガリナシ

東京市神田區五軒町九の一 ツキメナシ軍手發賣元 常盤商會本店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八十四番地 常盤商會支店에照會 또는來談 電話

京城鐘路 完全時計修理 普信堂時計舖

セブランス專屬醫院

京城驛前

檢眼無料 學生

◎急告 世富蘭偲란商號를假用하야奸利를取하는奸商이 京城、平壤等地에有하오니 諸賢은照亮하시옵소서

콜럼비아 大犧牲盤 드—코레 ● 갈—리

비의밤의 눈물 갈—리•스미 C 365

一枚80錢

世界唯一•完璧을誇한

農業用小型 얌마—디—젤

發賣開始

◎本機의五大特長
一、燃料費는電力의三分之一、石油發動機의十分之一
二、始動簡單、兒女子라도容易히運轉함
三、馬力強大、作業能率優秀
四、모—타—와如히一定한室을不要하고移動容易함
五、回轉에差가업어모—든用途에歡迎

型 馬力 2 3 / 4 5

◎特約店募集

詳細型錄進呈

總發賣元 株式會社 山岡發動機京城支店 — 山岡內燃機株式會社京城出張所

京城驛前

農林省御推薦 農工業用 가도다 石油發動機

型錄進呈

合名會社 我發商店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五八六三

十月十五日부터 一週間

醬油原料 特製소야멘드宣傳賣出

한되(一升)의원료를가지고、여섯되(六升)의진간장이되는……「소야멘드」……

◎自家用醬油의大革命 ◎文化生活에適應한新機軸!

本品의三大特徵—자양풍부、맛이조코、갑이싼新品

製造法 一、特製소야멘드一升 一、食鹽 二升 一、水 五升 혼합하야 고압스실수잇고 잠시끄린後 一三週後면 훌륭한 진간장이됩니다

宣傳中特價 一升瓶詰一本 一圓三十錢

京城 和信

學校의成績은頭腦가第一이오 頭腦가맑음이第一이다 時間과工夫가모자라는곳에는 ノーシン

가을은날을수가잇시오 頭腦를明快하게하는 工夫를하여라 ノーシン을 藥店에서 求하시오

活氣滿天한 醴泉痰藥

治風、治痰에 편작인

定價 大一圓二十錢 中 小六十錢

◎여기저기몸이쑤시고 여러가지手術을해도낫지못하는 走馬痰
◎百藥이無効하고 다리가끌어가는 鶴膝風
◎不隨不具者되는 中風
◎四肢가뻣뻣고곱은 가자마디면 痛節風
◎內臟에이상이 생기는 痰癖
◎五十歲男女의 腰痛
◎全身上下의 神經痛
◎百發百中인 醴泉痰藥만

發賣元 日新堂藥房京城支店 京城府內需町六番地 振替京城七二三七番

經濟解說

小運送의 統制

朝鮮非合同業運命

◉李健赫

× 鐵道省內에 設置된 小運送制度調査會의 委員及 幹事는 昨年以來 小運送制度를 除外하고는 內定되여 近間 全部正式發令되리라고 第一回總會를 十六日에 열고 「現下 經濟情勢에 鑑하야 小運送制度刷新에 關한 方針如何」의 諮問에 基하야 審議할 方針이라는데 鐵道省으로부터는

1、小運送業者法案
2、小運送株式會社法案

의 二法案을 根本對策으로서 提出키로 되엇슴으로 同調査會는 審議하야 特別委員會에서 政府原案을 檢討한 後答申키로 되엇다。그런데 內務省警保局調査에 依하면 全國運送業者가 自動車等을 하고 運送及 그他交互計算會社도 別로 反對가 업合으로 同法案은 大體調査會의 無修正案이 될것이고 十一月中에 決定되어 來議會에 提案될 方針이라 한다。그런데 小運送制度調査會에 當局이 基礎案으로서 提示코저하는 二案中 「小運送業法案」의 骨子는 「小運送業을 營코저하는者는 本法에依하야 主務大臣의 免許를 受할것 但既存의 業者는 保護키爲하야 本法公布前 一定期間營業한者는 屆出에 依하야 本法에 依하야 免許를 受한者로 看做한다」

이라고 되어잇슴으로 小運送業者는 免許될것으로 보고서 朝鮮內非合同業者는 如何히될는지 새로운 運命이 시작되엇다。

× 即 어떤 새로생긴 非合同業者計算單一機關인 鮮運會社도 株式會社의 幹部는 日前鐵道省의 小運送統制가 어떠케되어가는것을 자세히調査하는 同時關係當局에 「朝鮮도 小運送業者에 對하야 免許制를 延長식힐것이나 或은 朝鮮獨自事情으로 免許制를 밋지안흘것이냐」를 알어보겟다한다。

× 첫재 鐵道局의 案대로 特殊會社(半官半民)가 成立될것이며 小運送의 免許制度가 採用될것인지를 지금에 斷定키어려운 狀態이며 둘재 이것이 그대로 實現되드래도 朝鮮서도 반듯이 그대로 되지가 問題이다。

即 特殊會社案에잇서는 朝鮮은 旣述한 運合인 朝鮮運送株式會社가 旭日昇天의 勢로 發展되어가는터로 鐵道局으로서는 새삼스럽게 半官半民의 形式을 取하야 統制를 强化할 必要가 잇슬지 생각되는데이오 非合同業者에게 對하야서는 섭섭하게 免許制를 容認하야 옛날 承認店制度가 同樣으로 復活코저할지 疑問이다。

× 鐵道局으로서는 小運送을 現狀대로 存續시키기 만하드래도 非合同業者는 朝運의 積極强化와 反比例하야 營業衰縮의 一途박게 업서 自然消滅될것이니 非合同業을 免許하려하겟는가수後問題는 朝運이 어떠케되나는것보다 非合同業者가 어떠케되겟느냐는것이 問題인데 朝鮮서는 小運送免許制를 採用치안는다면 지금의 運送界事情에 變化가 업을것이나 意外이지만 朝鮮에도 鐵道局의 理由는 何如間小運送免許制를 取케 되는 限定下에 그후에 올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보자

× 지금手荷店의 非合同運送店中 免許될것은 決코 그수는가 남것이오 가장 損失가 큰것은 (個人이나 法人組織을 不問하고) 朝鮮人側에는 적으니 許制實施로 떨어서 減少된數에 止치안흘가하는 念慮가 不無하다 그러면 어떠케될고하니

1、朝鮮에서 運送業을 自由로하든 朝鮮人들은 免許制採用에 들지못하면 그날부터 運送業을하지 못하게 될것이오

2、現在非合同運送店만 부지케될것이며 數의큰運送店만計算機關이 鮮運輸는 朝運과 合併케되어 朝運과 免許된者의 計算機關이 되어버리고 말것이 아닌가?

× 筆者의 念慮가 된다면 朝鮮人小業者들의 運命을 어찌될고? 이것을 생각한다면 一部朝鮮運送業幹部(特히 非合同業者 幹部)는 이에 對하야 運動이 반드시 適切한것이라하야 無妨할가?

現經濟機構下에 잇서는 實力잇는 堅實한 非合同運送店은 免許되어야하고 적은것들은 서지는것이 當然하고 할것이나 現下에 朝鮮事情이 반드시 이에 多數의小者를 除去케하고 多數의大者를 그케할에 蕭殺치안하야 할가? 小運送統制가 本軌道에 入한今日 이런소리가 爲益者 할것은 하지만 朝鮮實情에 即한 다른方策이어서 極少數의 免許로써 滿足할것인가 一考를 要하고저한다(完)

米穀統制組合組織

月末까지 完了

組合員總數三十萬戶?

十一月부터 實施될 米穀自治管理法에 依한 統制組合은 郡單位로 全朝鮮百八十個所를 組織코저 今月十日까지 完了할 豫定이엇스나 作者 三分二의 承認을 바더야하는 關係上 豫定보다 遲延되엇슴으로 今月下旬까지에는 完了로 各道郡當局을 督勵하야 月末까지에는 全部의 組合을 結成코자한다는데 組合員總數는 아즉 알수 업스나 長期貯藏時 約三十萬戶이엇든點으로보아 自治管理法에 依한 米穀統制組合多數도 그以上에 達하리라고 推測된다한다。

對滿貿易

九月中出超 累計는 赤入超

九月中의 朝鮮對滿貿易은 如左한 大出超이엇다

	九月	前年
輸出	六、二二三	五、五〇五
輸入	二、五二三	三、八〇六
合計	八、七七七	九、三一一
出超	三、六八九	一、六九八

이것은 米穀이 九月에 入하야 增加된것과 結氷期를 앞둔 雜品需要增大에 依한것인데 累計額은 如左히 入超로되어 前年과는 逆轉이엇다

	今年	前年
輸出	四四、一〇七	四一、二〇三
輸入	五三、九五七	三九、〇四〇
合計	九八、〇六四	八〇、二四六
出入超	入超五、八五〇	出超二、一六六

在庫米價暴落

金融上憂慮

日本內地의 豊作謳歌로 端境期米價는 六、七月에 比하야 圓落한結果 朝鮮內의 農倉、米倉等의 期末高豫想의 投機所持米는 이影響을바더 大幅價格引下가되어 이引下는 新穀期를앞두고 米穀金融上 推移를 憂慮하게되엇다

即 朝鮮內의 大凶作豫想으로 大農側及 米商側에서는 期米의 高價豫想으로 賣惜하야 此種의 所持米가 農倉、米倉을 通하야 大體 三十萬石 乃至 四十萬石으로 推定되고잇다 그런대 此等은 高價期待가 豫想에 反하야 石四圓幅의 價格引下를 바든셈으로 米倉關係의 것은 米商、大農場側인것만큼 그리問題는 업스나 農倉關係에서는 이引下는 大打擊이 되리라고 豫想되고잇다

農林局에서는 今夏의 高價時에 一般의 賣惜을 憂慮하고잇섯는데 이引下에 際會하야 圓滑한 解決策에 苦心하고잇다한다

商銀吉州支店

十三日에 開業

商業銀行吉州支店은 十三日朴顯庭臨席下에 盛大히 開業하엿는데 新支店長及 支配人은 如左히 同日付로 任命되엇다

檢査役 松尾辰治
命吉州支店支配人
羅南行員 全浩燁
命同支店支配人代理

"採鹽"減少이나

供給은專賣局所持로

今年의 變態氣候는 各方面에 打擊을주엇는데 專賣局의 採鹽에도 大打擊이되어 今年의 採鹽豫定高三億三千八百萬斤은 實績에잇서 二億九千二百萬斤(八割一分四厘)에 박게 到達치안흔狀況이다 그러나 朝鮮內의 鹽供給은 專賣局의所持가잇서 市場에는 格別히影響을 與치안흐리라한다

朝銀이 北中進出

金融體系整備의 母體로될듯

朝銀에 預金코 金券發行

北中의 金融體系의 整備는目下東部、大藏、朝鮮銀行의 關係當局間에서 具體案을 考究中인데 冀東政權內의 金融機關에關해서는 大體 冀東銀行을 中央으로 金券發行을 하게하야 一種의 管理通貨制를 採用하기로 된模樣이다 即 이境遇에 冀東銀行에의 預金을 準備로 金券을發行하기로될 模樣인데 要컨대 通貨를 끗까지 朝鮮銀行券에 連繫시킬方針으로 나아갈터이다 그리고 冀察政權內에서는 이에對한 政治工作이 確立되어 잇지안흐므로 金融體系에 關해서는 何等 統一된 方針이 업는모양이나 金券을 可及的 速히實施할것을 目標로 方法을 考究하기로되엇다 如何든朝鮮銀行으로서는 北中進出의 根據點을 엇게되는셈이다

朝鮮銀行券

保證準備

八千萬圓程度?

一億圓必要 朝銀當局觀測

朝銀의 保證準備擴張에 就하야서는 大藏省에서도 이미그方針을 決定한것가타야 來議會에 擴張案提出이 確實케되엇는데 問題는 擴張의 限度로서 案으로서는 現在의五千萬圓을 倍額으로하자는案 三千萬圓을 擴張하야 八千萬圓으로 하자는案等이 잇는데 朝銀의 滿洲後退는旣定事實이오 또北中進出도 具體化되지안는 事情도잇서 實際問題로서는 一億圓의保證準備가 必要치안코 特히 日銀券의 準備도 低金利의 今日 市場으로부터 比較的有利히 取得할으로 結局八千萬圓程度의 保證準備로 되리라고보인다한다

朝鮮銀行의 保證準備擴張은 마츰내 來議會에 提出될 模樣인데 이는 屢次 傳하는 朝鮮銀行券의 日銀統一論과 相反하는 結論을 與하는것으로 朝鮮銀行은 滿洲로부터 後退後도 依然 朝鮮內의 中央銀行으로 그職能을 發揮할 方針은 자못 注目할바가잇다 그런데 保證準備擴張에 關하야 朝鮮銀行當局은 大體 如左한 觀測을 내리고잇다。

一、朝鮮銀行의 保證準備改正은 滿洲發行高如何에 달렷는데 滿洲로부터 後退한 境遇의 發行高를 생각하면 過去의 發行高에서 推察하야 增大되는일은 적을것이나 最低의 境遇에 想到해도 一億圓을 깨는일은 업슬것이다 따라서 保證準備擴張이 不必要하다는 論은 錯誤이다

一、日銀券을 準備로 發行하야 이를 毫市場에서 꾸며나갈수는잇스나 銀行券의 發行理論으로하면 이는 邪道로서 可及的 如斯한 準備에 依據치 안는편이조타

右와 如한 理由에서도 保證準備擴張은 必要한데 數年前의 日銀의 保證準備擴張時에 十二三億圓의 發行高에 對하야 保證準備를 十億圓 即 五倍로擴張한 前例가 잇스므로 朝鮮銀行도 現在의五千萬圓을 적어도 二倍의 一億圓程度에 擴張할必要가잇다한다

海運界의 現況

岡田商船林近海兩重役談

朝鮮郵船重役會에 出席하기爲하야 十四日朝 入京한 大阪商船專務 岡田永太郎氏及 近海郵船取締役 林友作氏는 最近의 海運界에 關하야 차례로 如左히 말하엿다

岡田氏談=最近商船의 西朝鮮航路에 優秀船을 配하느니 臺灣航路에 大型船을 使用하느니 誇大하게 傳하고 잇스나 何等 積極的意味는업고 傭船을 社船으로 代하는 것뿐이다 京城出張所도 支店으로 昇格하엿스나 何等 他意가잇는것이 아니오朝鮮 營業을 總轄하는데不過하다

林氏談=最近의 海運市況은 朝鮮하야 傭船料等 一時의 高價에 比하야 五、六十錢 引下되엇는데 出穀期에 直面하엿스므로 今後는 回復될것이다 造船界는 依然히 活況을 呈하야 目下의 契約은 八十三隻에 達하야 未曾有의 現象을 呈하고잇는데 다시 遞信省이 重要國策

經濟界消息

○產業調査會委員入京日程=來二十日부터 開催되는 朝鮮產業經濟調査會에 出席할 日本內地及 滿洲側委員은 如左한日程으로入京할豫定이다

▲十八日午後二時五十分着行下義春大佐(關東軍第三課長) 鈴木梅太郎氏
▲十九日午後二時二十分着 關原忠三氏(大藏省預金部長) 荻原彥三氏(拓務省殖產局長) 橋本三郎氏(日石社長) 大橋新太郎氏(京電社長) 大藏公望男(大藏經濟研究所長) 根津嘉一郎氏(東武鐵道社長) 內藤熊喜氏(日電副社長) 藤原銀次郎氏(王子製紙社長) 石田禮助氏(三井物產常務) 河手治二氏(三菱鑛業會長) 安藤廣太郎氏(農林省技師)
▲十八日午前七時四十五分着 國府種一氏(住友合資理事)
▲十八日午後三時二十分着 岩住良治氏(東大名譽教授) 桂辯三氏(東大名譽教授) 佐藤鐵五郎氏(東大講師)
▲十九日午後二時五十分 郡山智氏(滿鐵理事)
▲二十日午前十時着(飛行機) 森廣藏氏(日產工業社長)
▲二十日午前七時四十五分着 村田省藏氏(大阪商船社長) 津田信吾氏(鐘紡社長)
▲二十一日午前七時四十五分着 松本健次郎氏(石炭鑛業聯合會長)

取引停止 (十月十日)

▲京城府昌信町三三〇漢興紙物舖 張二鳳 ▲京釜線軍浦場驛前 金仲濟 ▲京城府蓬萊町一丁目一四一 吳榮起 ▲京城府蓬萊町一丁目二七合資會社都大藥房 代表者都[illegible]

經濟寸鐵

○日前에創立된 京城商工組聯合會는 老人을會長으로 모시고 무슨일을 할는고
○所謂躍進大京城의 商工組聯合會의 힘이 안드래도 까닭몰을 派事이 潮流해서는 無用의長物
○이럴터이면 차라리 商工會議所에 맛치어다보고 가만잇는것이 若何?

商況 (十四日)

株式 形勢不良 低落

前場不勢 前場에는 鐘新百七十九圓七十錢 東新百三十七圓二十錢 朝新三十六圓丁 日產八十三圓二十錢 日產新二十九圓八十錢에 寄付하엿는데 그後買가거의업서 極히閑散하야 結局朝新三十六圓十錢 鐘新百七十九圓五十錢 東新百三十七圓十錢 日產八十三圓二十錢에 各各大引하엿다

後場軟化 後場은東新百三十六圓四十錢 日產八十二圓六十錢 鐘新百七十八圓六十錢으로低落하야 軟化商狀이엇다

英中借款成立

日中交涉念慮

◆北濱情報=【大阪電話】英中借款問題成立으로 日中交涉前途念慮에 依하야 諸株軟調이오 日鐵은 三國金協定에 依하야 金塊先高의 可望이 적어서 處分이 急한 一方拂込後의 期待로 新株買의 保險賣行이 잇서 產業은 下値에는 東京側의 買進이 潛在하얏고 電力株는 依然彌賣反對氣勢가 好感되엿스며 肥料株는 硫安時價對策好感으로 堅素目前買 鐘新은 買方利食이엇다

底堅裡不活潑

昨今의 市勢는 東新이 百三十七圓內外에 膠着狀態이며 日產도 亦是八十三圓臺에서 머뭇거릴뿐이다 鐘新은 百八十一圓三十錢의 高價를 보인後에는 百八十圓關門에서 往來하고 잇슬뿐인데 그러면 이市勢가 相當한 下押을보일것인가하면 그럴것갓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不活潑하기는하나 膠着狀態를 보이기는하나 亦是 市勢는 底堅한것으로 볼수밧게업다 即 增稅案發表로因한 直接間接의 影響 日中交涉의 停滯等으로 이와가티 不活潑한 商況을 보이나 그러면 買進하느냐하면 買進하지도안코 傍觀하고 잇는터이니 말하자면 積極的 買進을 避하고잇슬뿐이지 賣叩할 餘地가잇다고 보지안는것이 明白하다 다시말하면 目前은 靜觀할 必要가 잇다고 認定하나 大勢는 選擇買의 方針을 繼續할때라고 解釋하고 잇기때문이다。大局의 推移를 觀察한다면 株式投資家에게 不安을 주는問題가 不少함에도 不拘하고 亦是 株式投資에로 向하게하는 情勢라고 보고 잇서서 買方針이 市場을 支配하야 市勢의 基調를 底堅케 하고잇는것이다

諸材料의 檢討

增稅案의 發表로보아 商業과 法人企業을 中心으로한 負擔의 增加는 顯著한 事實이라할지라도 一方豫算要求는 從來에 比하야 一般의 多額을 보일것이므로 總額도 一躍 大膨脹이 될것은 必至일것이니 인플레의 程度가 大될것은 分明하다 그리고 行政機構問題、電力問題等도 遲延을 不許하는 形便이니 이動向에도 잘 注目하야 投資方向을 決定해야 할것인데 政治情勢의 進展이 波動이오 機構上에 重大影響을 미치는 時代이니 만치 投資家들도 이에 適應해야할것이다 비록 機構革新增稅等으로 摩擦、壓迫은 避할수업다 하더라도 인플레에로 適進할것이라는 것만은 認定하여야 할것이오、改革工作은 資金移動을 容易히 發展을 計劃化할것이므로 好影響을 주는方面을 捕捉하는데 努力한다면 轉禍爲福이 될것이라고한다 또 中國問題가든것도

㈱……有價證券移轉稅率發表도 別無影響▲오르기에는 資勢가 不足하고 내리는것은 大局이 新鮮치안허 相當膠着하고잇는것이 昨今의市勢▲鐘紡東新의活躍은 增資拂込豫想뿐 아니라 將來北中進出을 有望視한때문이라나▲무엇보담 힘 못쓰는 東新、大新은 取引稅發表念慮와 雜株連續過中에 처 舊重伸縮하는모양 그러나 내리지못하는 市勢의 不問可知……

㊊……今回의各地反高는 八丈島附近의 颱風을念慮한까닭이라나 今日은颱風이太平洋方面으로脫走하엿스니 一時的强材料가되고말엇슬뿐 ▲그러나市勢는依然强味를添하야 懲罰할만한强材料만잇다면 보기조케 一段反撥을示할氣勢 ▲그러치만當分이러타할만한 强材가업스니 硬派로도更히用武할餘地가업는걸 ▲今朝의市勢는米穀自治管理法이 發動할수업는以上의高價를示하엿스니 買方의追擊도妙味가업슬뜻

期米 底堅이나 伸惱

前場强含 昨後場阪地二十八圓七十五錢止와共히 二十六圓六十五錢에 寄付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二十八圓七十六錢인 一丁高를 據하고 二十六圓六十九錢인 四丁高로場을始한後 阪地八節八十錢까지跳返하엿다가 七十四錢에 止揚합을 伴하야 八節七十一錢으로 六十四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小弛 後場은 二十六圓五十九錢인 五丁低로 場을始한 後 五節五十三錢으로 結局五十九錢에止場하엿다

六感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本町三丁目

底入? 呼吸?

高價에서 六百五、六十丁이나 暴落한 後인만큼 更落할 餘地가 업서 마치 底入을 形成할파如히 多日間 低價의 纏綿하다가 阪地는 四十餘丁의 返戾 當地는 五十餘丁의 反撥을示함에 至하엿다 驗者 當地二十六圓十三錢을 完全한 底入이라할지 又는 그以下의 市勢가잇슬지 此에는 斷言할수업스나 그러나 大體 本年의 大豊作으로 보든지 또는 米穀自治管理法의 發動範圍로 보든지 買進할만한 何等의 條件이 업다 仕手의關係로 어느 程度까지의 反撥을 示할지는 몰으나 此는 一時的現象에나지안흘것이오 結局은 實勢威脅의市勢가 到來치안흘것이오 軟派는觀測하고잇다 實로本年米作의豫想이 昭和八年度의다음가는豊作임으로 그當時의市勢를恢復키는 物價指數로보아서難한일이나 그러나 當地卅六圓十三錢파 阪地卅八圓卅七錢以下의市勢는 不遠한將來에 現出할것으로觀測되다

米價前途一觀

結局戾賣得意?

多日間二十八圓三、四十錢臺에서 一張一弛하든市勢는 때마침颱風의念慮로 各地一齊昂騰함에 딸아 假然六十錢臺로 跳返하엿다 그런데 此騰勢가 底入을내고 本格的으로 騰途에入하엿는가 또는 一時的의모도리인가를 一考하면 今朝阪地二十八圓七十錢臺의 市勢는 最低公定價格의 一割上値의 以上高價임으로 硬派로서도 買進할妙味가업다 即日本內地米作第一回豫想은 昨年의 實收보다 一千萬石의 增收로昭和八年度에 다음가는 豊作이며 從하야 米穀自治管理는 最低公定價格으로부터 一割上値即 二十八圓七十錢까지 임으로 農家

今日財界 (十四日)

◆米 ◆株 ◆商品 ◆市中金融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大同產業 ▲大日本紡織 ▲朝鮮製錬 ▲浦賀第二 ▲日產 ▲品川造船 ▲東亞土木 ▲大島製鋼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取引高 二八〇枚) 【東京電話同盟】米貨債의 課稅率發表待의 人氣가되어 賣方이 모다 傍觀狀態로 推移하야 六分半은 不變이오 五分半은 二十錢低로 小浮動에 끈치고 日本內地債도 全利 焦付化하야 四分利債는 反動으로 五錢小弛이엇다 [illegible]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第三五分 ▲佛貨 ▲米貨六分半 ▲滿洲公債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當限에 買方策動說(受米工作說)이 傳하야 買方廣瀨、群山의 田中龜甲에 暗暗裡에 俵拓乃至受米連名을 行하고잇는것이나아닌가하는說로 當限獨高를 示하고 또早收地方의 繰入不足을 傳하야 二回豫想의 收穫減少를 期待하고 强氣와 利有側이 買進한後 期近買氣와 戾一巡으로보는 軟派戾賣에 伸力이 阻害되어 市勢一服 商狀이 엇는데 人氣는多少明朗化해왓다 今朝主要賣買는 如左하다

各地正米

京城閑況

原料品으로 多少 買가잇스나 一般人氣는 沈靜을 繼續하야 至極 閑散場面을 呈하고잇다 ㊤三等二七、三〇 四等二七、〇〇 一等白米二一、五〇

仁川不勢

日本內地는 颱風念慮로 期米는 幾分人氣記强硬하나 現物商狀에는 큰 變化가업서 取引은 極히 閑散이엇다 ㊤三等二七、三〇 四等二七、〇〇 一等白米二一、八〇

釜山不變

當用側精米側이 選品的으로 多少買進할뿐이오市況은 依然閑散揚面을 未脫하얏다 新米는交是品質粗惡으로 一般人氣는 조치못하다 ㊂三等二七八五〇 四等二七〇〇 一等白米二二、三八

大邱少堅

鴻散은 極히 不圓滑하나 定期의 强保合과 賣物稀薄에 十錢高唱이어다 ㊂三等二六、九〇 四等二六、六〇 一等白米二一、二五

群山少堅

此邊이 低價一巡으로보아 股賣安는 조금식 散見되나 活潑한 賣買는업다 定期少彈에 人氣는 좀 少騰에 回復하야 十錢高이엇다 ㊂三等二七、三〇 四等二七、〇〇 一等白米二一、三四

木浦崩落

價位高에서 所持品 處分賣物이 殺到하야 定期小彈도 모르는체 四十錢의 崩落을 告하엿다 新米出廻가 漸增하야 天候良好에 ㊂三等 二七八〇 四等二七五〇 一等白米 二三、〇〇

京城株式 / 大阪短期 / 東京短期 / 東京現株 / 朝取短期 / 朝取期米 / 仁川期米 / 大阪期米 / 大邱期米 / 群山期米 / 釜山期米 / 木浦期米 / 東京期米 / 日本各地期米 / 大阪正米 / 大阪市中在米高 / 各地正租市勢 (十四日)

[illegible]

金融 (十四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十四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十四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綿油冲價◆ ◆綿摔粕沖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外國爲替◆ [illegible]

米 仁川 東益商店 ㈱ 金益證券 株式會社 光

仁川期米 仁 仁川海岸町 紺谷取引店

株式 期米 玉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